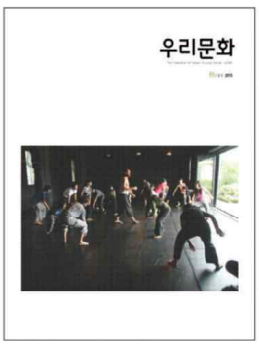
우리문화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vol.240

秋가을호 2013



후용공연예술센터 극단 '노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마을에 위치한 후용공연예술센터의 극단 '노뜰'. 마을의 폐교를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역민에게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동네아이들이 들락날락하는 문화적 산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과 지역민간 윈윈(Win-Win)관계를 유지하며 문화귀촌 성공사례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문화

등록번호 서울라12184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소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2층

홈페이지 www.kccf.or.kr **전화** 02)704-2311~3

팩스 02)704-2377 **발행 · 편집인** 오용원 **편집위원** 한춘섭, 곽효환, 나도은, 이기만

기획 · 디자인 · 편집 · 인쇄 ㈜컬처플러스 02)2264-9028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Contents

秋가을호 2013
vol.240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 빅뉴스		02

테마특집

테마기획	시골마을이 떠들썩, 문화귀촌의 시작	04
우리문화가 만난 사람	"마을 어르신들이 흐뭇해 하시죠"	10
문화탐방	생태적 문화귀촌 지향하는 '우물터'	14

이야기가 있는 문화

문화산책	도심속 별천지, 부암동 나들이	16
명품 지역문화	전설과 맛이 깃든 팔도음식	20
지역스토리 PR	지방문화원 팸투어 성공하려면?	24
포토에세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문중시제	28
秋억여행	秋억 찾아 떠나는 기차여행	30
지역문화 포커스	지금은 박람회 시대	34

기획연재

톡!톡! 이색프로그램②	7가지 무지개 빛깔 곡성농촌체험마을	38
해외사례 연구②	이탈리아 '볼로냐'	42
지역문화 아카데미②	"전문가용 카메라를 똑딱이처럼?"	46

정보마당

한국문화원연합회 이모저모	조기철 사무총장 취임	50
지방문화원 이모저모	지방문화원 신임원장 현황&행사소식	51
문화칼럼	지역문화와 지역협력	56

지리산 '세계복합(자연과 문화)유산' 등재 추진

유인학 호남권 추진위원장, 최구식 영남권 추진위원장 공동추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문화원 사이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경남 함양 · 산청 · 하동군과 전북 남원시 · 장수군, 전남 구례 · 곡성군 문화원으로 구성된 지리산권 7개 시군문화원장협의회(회장 이병채/남원문화원장)는 최근 지리산의 세계복합유산 지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등재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호남권 추진위원장에 유인학 전 국회의원, 영남권 추진위원장에 최구식 산청 세계전통한방의약엑스포집행위원장을 각각 공동 추대했다.

또한 지리산권 문화원장협의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5월 중순 모임을 갖고 "지리산은 5,0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부터 6 · 25전쟁 때까지 전적지이자 은둔지였다"면서 "회엄사 · 쌍계사 등 250여 불교 사찰을 포함, 유교 · 도교 · 기독교 유적과 민속신앙 등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 가치가 충족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지리산권 7개 문화원협의회는 경남과 전남, 전북,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등이 후원하고 있다.

한편 국립 경상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리산권문화연구단에서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문화재청은 복합유산보다는 종교문화경관으로 축소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산의 가치로 볼 때 종교문화경관 보다는 복합유산 지정이 옳다는 게 지리산권문화원장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지리산권문화원장협의회는 최근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에서 총 1억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용역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동식물 분포자료 조사에 특히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조사 보고가 끝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관계 당국과 협의, 세계복합유산 잠정목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리산의 자연 · 문화 유산 가치 널리 알릴 터"

인터뷰 이병채 지리산권문화원장협의회장(남원문화원장)

Q 지리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돼야 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면?

A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어머니 품속 같은 산이자 오랜 세월동안 이어온 생활문화 터전입니다. 역사 · 문화유적, 종교뿐만 아니라 태고의 전설, 전쟁의 비극도 품은 산입니다.

전 세계에 복합유산 28개가 등재 돼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권만이 유일하게 복합유산의 등재 가치가 있는 대상지이므로 한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합유산으로 반드시 등재 시켜야 합니다.

Q 7개 문화원장 협의체인 '지리산권문화원장협의회'의 역할은?

A 지난 2006년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전남 · 전북 · 경남 등 3개도의 7개 시 · 군 문화원장을 중심으로 구성 됐습니다. 따라서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서명운동 전개, 지리산의 가치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자연문화경관으로 지정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이지만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료를 보완, 제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지리산을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A 세계복합유산은 고대잉카제국 유적지인 마추픽추, 중국 태산 등 세계적으로 28곳이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리산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제주도가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리산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증명해야하고 3개도 7개 시 · 군의 자치단체 그리고 국립공원, 환경부, 산림청 등 수없이 많은 관련단체의 의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리산권문화원장협의회가 이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cademy

2013년 9월 9 ~ 12일

2013 지역문화경영과정 개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13년 9월 9일(월)부터 12(목)까지 '지역문화경영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지역문화경영과정은 지역문화 실무자들의 기초역량강화 과정으로 사무국장, 지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 첫째 날에는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문화융성시대의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사업공모 주제 선정, 기획, 홍보와 국고보조금 정산 및 증빙, 우수문화원 사례 등의 강의가 이어졌으며 조별 과제로 '문화원 브랜드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울러 북촌길 문화탐방을 통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한편 지역문화경영과정은 지방문화원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설되고 있다.

workshop

2013년 8월 ~ 10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워크숍 개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권역별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운영계획 안내 및 사업 성과제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11개 시·도에서 권역별로 실시된다.

시·도문화원연합회와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193개 지방문화원이 참여한다.

워크숍은 사업현황, 평가, 축제 등에 대한 하반기 운영계획,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행정 및 정산지침, 우수사례발표,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토론 등이 진행된다.

festival

2013년 9월 ~ 11월

2013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 개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시·도연합회와 함께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2013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를 추진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사회적 인지도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총 14개 권역에서 실시되며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시골마을이 떠들썩 문화귀촌의 시작

시골 마을에 '작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 멈춘 지 까마득하고 노인들만이 남아 터전을 지키고 있던 적막한 농촌이 갑자기 떠들썩해지고 있다. 스케치북을 든 청소년들이 오가고 사물놀이패가 꽹과리를 치며 지나가고 연극 공연을 알리는 이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

1 농촌에서의 경제활동과 예술 창작의 조화를 고민하는 도시청년예술가들의 모임
2 경북 성주중 우리문화 체험마당 수업
3 봉화 지역민과 함께한 비나리미을학교 야유회 모습
4 제주 '서귀포사림들'의 그림 그리는 해녀

문화예술인 · 지역민 '윈윈(Win-Win)' 관계

최근 들어 '문화귀촌'이 불 번지듯 일어나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던 문화예술인들이 이삿짐을 싸고 시골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귀촌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귀농귀촌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각박하고 치열한 삶에서 피로에 지친 도시인들이 물 좋고 공기 맑은 시골로 생활공간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귀농'이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면, '귀촌'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동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 문화귀촌은 '귀농'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귀촌'이라 부르는 게 맞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창작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농어산촌 어디라도 좋다는 반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4,067가구였던 귀농 · 귀촌인 가구는 지난해 10,503가구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시골로 내려가는 인구가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귀농 · 귀촌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8세로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데다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수치화 되지는 않지만 '문화귀촌' 인구도 귀농 · 귀촌 속도와 비슷하게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어산촌에 내려가 자신이 가진 문화적 재능을 펼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인과 농촌의 윈윈(Win-Win)관계를 낳는다. 도시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농촌생활을 즐기며 창작을 하고 싶어 하고 농촌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마을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공연 부터 농축산물 배송까지

이러한 문화귀촌은 기존의 예술인마을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화가 20여명이 모여 살아 '화가 마을'로 통하는 양평예술인마을이나 구례군 인구 늘리기 시책 중 하나로 만들어져 개촌 1주년을 맞는 구례예술인마을, 원로작가 박서보 화백, 국악인 안숙선 명창, 가수 양희은 등 15개 문화예술분야 48명이 모여 중산간 깊숙한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제주 저지예술인마을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우선 기존 예술인마을이 애초 예술가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됐다면 문화귀촌 마을은 여기저기 게릴라식으로 생겨났다. 또한 예술인마을이 번듯한 창작공간을 갖고 있다면 문화귀촌인들은 생활공간이 창작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인마을이 '창작'을 주 목적으로 삼는데 반해, 문화귀촌인들은 창작활동보다는 '생활'과 '소통'에 더 관점을 둔다.

충북 제천의 예술과마을네트워크 '마을이야기학교'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10년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폐교에 입주해 창작과 마을공동체 문화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 체류하며 개인 예술창작활동 외에도 농사일에 적응해 지역민과 한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또 다른 예로 극단 '노뜰'을 들 수 있다. 강원 원주의 후용공연예술센터에 소속된 극단 '노뜰'은 국내뿐만 아닌 해외 예술가들의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창작공간을 개방해 지역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의 '감자꽃 스튜디오'와 경남

진주의 '정수예술촌' 역시 지역과 문화가 잘 어우러져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을 창출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일찍이 비나리미술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 봉화군 '비나리마을학교'는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봉화지역의 농·특산물 배송 서비스를 상품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제주, 완도, 화천 등 귀촌행렬 이어져

지역별로 보면 물 좋고 산 좋은 곳이 문화귀촌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가시리마을' 사례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내 문화학교를 만들었고 이를 중심으로 전통공예와 목공 등 여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목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조랑말박물관을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프로그램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문화 도농교류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최근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을 창립한 문화공동체 '서귀포 사람들'은 그들의 창작물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접목하는 데 애쓰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림 그리는 해녀'는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 출품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해녀시리즈인 '바당은 내 삶의 무대'라는 작품으로 연극치료를 비롯한 수업을 기획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은 소설가 이외수의 문화귀촌 정착지로 유명하다. 소설가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틈틈이 무료 문학강좌를 개설해 문학재능을 기부, 조용했던 마을을 연간 4,000여명의 관광객과 문하생들이 방문하는 문화 관광마을로 바꿔 놓았다. 이밖에도 방곡도예촌과 진천공예마을, 도계 유리마을과 안동, 서천, 담양 등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귀촌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창작' 보다 '소통'이 더 중요

한편 새로운 꿈을 안고 귀촌을 시도했다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역귀농'하는 사례도 있다. 짐 싸들고 들어온 귀촌인들이 '외지인'이라는 탐탁찮은 꼬리표가 붙인 채 떠밀리다시피 외면당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심심찮다.

한 예로 시골생활을 자신의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낭만적 삶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귀촌했다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부류다. 또 다른 예로는 농촌으로 내려오자마자 땅을 측량하고 기둥과 대문을 세워 울타리부터 치는 경우다. 이는 소통이 불통이 되고 지역민과 화합하지 못하는 귀촌 실패의 대표적 요인이다.
송성일 비나리마을학교 대표는 "예술가 이전에 지역주민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웃의 눈높이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중시되는 도시문화와 공동체가 중시되는 농촌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화귀촌에 성공한 이들은 한결같이 "도시출신의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시골마을 주민의 일부가 돼야 성공한다"며 "지역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와 애정을 가지면서 동시에 문화귀촌의 목적과 귀촌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2016년 문화귀촌 사업 본격화

한국문화원연합회도 오는 2016년 문화귀촌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문화밀착형생활공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역주민활동조직 구축 통한 일자리를 창출 ▲사회적 기업 확대 ▲창업 컨설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귀촌 사업이 청년실업 및 농촌고령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말 정부기관과 산하단체들의 지방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 '문화귀촌'도 덩달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귀촌이 우리나라의 지역문화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귀촌 성공사례 **하나**

강원 원주시 극단 '노뜰'

동네아이들 공연연습장 들락날락…

1 연극에 함께 참여하고 감상하는 후용리 어르신과 아이들
2 극단 '노뜰'의 원영오 대표
3 공연 연습에 매진하는 '노뜰'의 단원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스피커에서 아침 일찍 후용마을 이장의 헛기침 소리가 들린다.

내용인 즉, 오늘 저녁에 재밌는 공연이 있으니 밭일 얼른 끝내고 모두 참석하라는 얘기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산골에 위치한 '후용공연예술센터'. 여기에 세계적인 극단 '노뜰'이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원영오 대표는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하면서 탈춤에 빠져 생활했으며 잠시 바르셀로나로 건너가 다국적 단원으로도 활동했었다. 이 와중에 연극에 뜻이 맞는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하기 좋은 공간을 물색하다 마침내 93년 원주시 후용리에 있는 폐교를 발견하고 일찌감치 이웃지역으로 '문화귀촌'을 결정하게 된다.

원 대표는 이곳에서 극단 '노뜰'을 창단하고 〈동방의 햄릿〉, 〈귀환〉, 〈맥베스〉, 〈피의 결혼〉 등 다소 철학적인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시골에서 공연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연극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워 도중에 극단 사무실이 처분되고 '딴일'을 찾아야하는 위기까지 맞기도 했다. 하지만 97년 '모나코 페스티벌'에 초청된 첫 해외공연작의 성공을 계기로 아시아와 호주, 프랑스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다시 일어섰다.

원주문화원과 '임윤지당' 소재로 희곡 완성

이 같은 극단 노뜰의 세계적인 유명세는 시큰둥했던 지역민들의 동참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되기도 했다. 원 대표는 연극 창작과정을 마을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웃지 못 할 에피소드 하나. 동네 마실 오듯 공연 연습실에 놀러오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작품 줄거리를 꿰찬 동네아이들이 실제 공연 때 객석에 앉아 이어질 장면의 대사를 계속 발설(?)하는 바람에 혼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원 대표는 "이것이 바로 생생한 연극 교육의 결과"라며 오히려 좋아라 한다.

극단 '노뜰'은 지역의 역사문화인물을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해 원주문화원과도 교류하고 있다. 조선시대 원주에서 이름난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을 소재로 한 낭독공연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교육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스로 마을주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동네일손이 필요하면 만사 제쳐두고 돕기도 한다. 심지어 작품을 준비하러 온 해외 예술가들과 모내기를 하기도 했다. 문화귀촌의 원조격인 원영오 대표는 "조급하게 문화적으로 많은 일을 시도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의 일부를 조금씩 지역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며 "지역사회와 괴리되지 않으면서 창작세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극단 '노뜰'은 내년 10월 호주 예술가들과 후용리에서 준비했던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다. 대만 무용단과도 공동창작 작업을 앞두고 있다.

문화귀촌 성공사례 **둘**

충북 제천시 '마을이야기학교'

떡 빚고 김치 담그며 '농한기교실' 프로그램도

1 김정헌 예술과마을네트워크 대표가 주민들과 미술관 나들이에 나섰다.
2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한토막씩 받고 그림과 사진을 제공한다.
3 '손맛아카이브'에서 예술가들과 마을사람들이 함께 빚은 기정떡
4 마을이야기학교 제천 운영팀장 장창 작가

우리 동네 잊혀진 이야기를 되찾고 새로운 이야기를 가꿔낸다는 '마을이야기학교'.

이름답게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이자 '(사)예술과마을네트워크(이하 예마네)' 대표인 김정헌 씨가 2010년부터 충북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한 폐교에 터를 꾸리고 '마을이야기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도농교류 문화공간으로, 입주예술가와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통용되고 있다.

서울에서 미술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장창 작가(마을이야기학교 제천 운영팀장)는 경향아트 공공미술연구소와 DMZ국제평화레지던시 등에서 연구, 기획, 실무 등 현장경험을 쌓다 지난해 '마을이야기학교'에 입주했다. 이제 갓 귀촌 1년째인 장 작가는 요즈음 흙냄새를 맡으며 그림을 그리고 농사도 짓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그에게 문화귀촌의 노하우를 물어봤다.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인사, 이해,

2

3

4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하루하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사로 시작해 대화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 마을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역밀착형 콘텐츠가 동질감 형성에 한 몫

하지만 문화이주민과 토박이 간에 존재하는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마도 입주 예술가 둘 중 하나는 스스로 '우리가 마을에 적응을 못 한 탓일까…' 라는 회의와 자책감이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동안의 남모를 노력 덕분인지 학교가 세워지고 2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주민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질감을 갖게 된 데는 '마을이야기학교'의 지역밀착형 콘텐츠가 한몫 단단히 했다. 마을 생태문화지도 제작과 마을이야기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문화프로그램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민들과 함께 마을전통음식을 재현하는 '손맛아카이브'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했다. '손맛아카이브'는 할머니들의 음식 구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문화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 전통 떡을 빚고 김치를 담그며 낙낙한 마을인심을 나눈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결 중의 하나였다. 겨울철에 '농한기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해 문화예술 워크숍과 한글교실, 인터넷교실 등 생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게 문화예술의 사회화(사회적 가치 확산), 과학화(삶의 질 개선), 민주화(문화자치)를 지향하는 예술과마을네트워크의 미션(Mission)이기도 하다. 앞으로 마을이야기학교는 마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예술인 거주프로그램 '문화농활 레지던시'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귀촌 성공사례 **셋**

경북 봉화군 '비나리마을학교'

도시 엘리트 부부의 산골짜기 '작은 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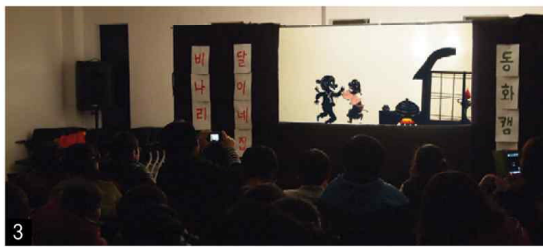
서울에서 일류대를 졸업하고 각각 대기업 홍보실에, 예술계에 몸담았던 송성일 · 류준화 부부. 이들은 17년 전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무작정 경북 봉화로 내려와 터를 잡았다. 처음엔 낯선 시골 현실에 모진풍파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문화귀촌 대표주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남편 송성일 씨는 농사를 짓고 아내 류준화 씨는 그림을 그린다. 이들 부부는 마을주민들과 삶과 문화를 공유하는 '비나리마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인근 7개리의 주민 35명 가량이 공동출자한 '청량산비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비나리마을학교'의 주체다. 이들 부부가 2004년에 만든 비나리 산골미술관이 '비나리마을학교'의 모태다. 그동안 비나리미술관은 정정엽, 강석문 등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개인전을 열거나, 지역주민이 작가가 되어 개인전을 가지는 등 마을의 작은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마을주민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토요미술학교'도 7년 동안 운영해 왔다.

1

2

이 같은 마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5년 전 정부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돼 7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비나리마을학교'를 설립하게 됐다. 현재 '비나리마을학교'에서는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을 초청한 영화상영회와 인형극 공연, 그리고 연 4회 진행중인 1박2일 과정의 '비나리달이네 동화캠프'가 특히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1 비나리미술관 전시장
2 산골 어린이 전시 겸 파티
3 비나리달이네 동화캠프



3

공동체 문화 매개로 '협동조합 학교' 진행할 터

송성일, 류준화 부부는 산골마을 자체가 문화적으로 결핍된 공간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다만 문화예술이 발현하기가 어려운 농촌이라는 환경적 조건 탓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마을에 대한 애정을 더 크게 갖게 되는지도 모른다.

"어린이미술교실 졸업전시가 있던 날이었어요. 마침 크리스마스와 겹쳐 조촐하게 주민잔치를 가졌습니다. 마을의 온 가족이 조금씩 준비해온 음식으로 파티상을 차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그때 우리가 지향했던 '행복한 마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마을에 대한 일종의 소명감을 북돋을 수 있던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봉화문화원의 강당을 무상으로 대여해 '지역학교 살리기 포럼'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봉화문화원의 풍물강사를 초빙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풍물강좌를 진행하는 등 문화원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송성일 류준화 부부는 "봉화문화원이 봉화군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원이라면 비나리마을학교는 봉화군 명호면의 작은 문화원"이라고 말한다.

한편, 현재 6박 7일 과정의 귀농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비나리마을학교는 앞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모색하기 위해 작은 마을의 고유자산인 협력정신과 공동체문화를 매개로 한 가칭 '협동조합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 박유나

사진제공 극단 노뜰, 마을이야기학교, 비나리마을학교, 서귀포사람들

“마을이 시끌벅적, 어르신들이 흐뭇해하시죠”

최재우 금수문화예술마을 촌장

세상사 영원한 것 없다지만 자리 차지할 까닭이 없어진다는 것은 슬프게 마련이다.
농촌서 심심찮게 만나는 문 닫은 학교 또한 마찬가지. 마을 공동체 공간을 허문다는 것은 마을주민들에게도 상처다. 그런데 이런 폐교에서 ‘스승의 은혜’를 제창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대신 쾌지나 칭칭나는 풍물소리와 마을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역문화에 뜻을 품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스튜디오로, 청소년과 마을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수문화예술마을의 최재우 촌장을 〈우리문화〉가 만났다.
그는 어이해 촌 아저씨가 됐을까?

우리문화체험마당의 그림자극 미술수업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125번지'와 조우하다

"연극에 몰입하고 싶었습니다. 극단 후배들 또한 같은 생각이었고요. 바로 결단을 내렸고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 닫게 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됐지요. 문화센터 등 여러 형태로 구상하다 시내와 떨어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민 또는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설계하게 됐습니다"

성주군과 농민회, 교육청으로부터 '내년이면 폐교가 될 학교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보라'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최재우 촌장과 금수문화예술마을의 만남은 시작됐다.

대구시내 고등학교 지리교사였던 그는 10년 동안 정들었던 교단을 뒤로하고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125번지로 내려와 둥지를 틀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학교 뒤편에 자리한 옛 사택과 숙직실에서 밥을 해먹고, 운동장 토끼풀을 뜯으며 전원생활 중이다. 최 촌장은 숙직실을 원룸이라 부른다. 이 생활도 그런대로 재미있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미 해학이 물들어 있었다.

대구문화예술계서 열렬히 활동하다 '귀촌'

"여기 오기 전이요? 예전엔 건방진 놈이었습니다" 껄껄 웃으며 고백하는 그의 말이 좀체 믿기지 않는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의 대표이자 극단 연극촌사람들의 연출가인 최재우 촌장. 푸근한 인상에 하얀 모시옷을 걸친 모습은 영락없는 촌동네 아저씨다. 금수면 마을 주민들도 그를 '동네유지'라 칭한다. 어딜 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주군 금수면

주민들과 막역한 정이 들었다.

99년 성주군 금수면 시골마을로 들어오기 전. 혈기 왕성한 삼십대 중반이었던 그는 대구 문화예술계에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돌연 딴 사람이 된 계기는 뭘까.

"쨍,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 알지요? 한번은 TV 생방송에서 아나운서와 한 시간짜리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란 생각만 맴돌 뿐. 순수하게 연극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이카고(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교를 지역 문화공간으로

이 작은 시골마을의 오래된 학교 '금수국민학교'가 '금수문

화예술마을' 로 재탄생한지 올해로 14년째. 지역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 불리는 이곳은 2000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사업을 주관하면서 경북 지역의 노인, 기초수급자, 조손가정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두루두루 제공하고 있다.

흔히들 폐교라 하면 삐걱삐걱 소리 나는 공포영화 속 학교를 연상하곤 한다. 하지만 금수문화예술마을에서는 폐교의 퇴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곱다. 아름드리 잔디밭을 안정감 있게 두른 알록달록한 울타리와 생명력이 느껴지는 각종 나무들, 그리고 화단의 앙증맞은 나무장승이 오는 이들을 반긴다. 운동장 한켠에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무대도 마련돼 있다. 학교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었던 것은 성주군과 관공서를 비롯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사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성주문화원과는 성주지역행사 및 금수문화예술마을의 프로그램의 홍보와 지역 문화인들 세미나 개최 등을 비롯해 각종 행사시 꾸준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마음이 동(動)하면 통(通)한다"

각박하고 치열한 도시생활을 끝내고 내려왔지만 막바로 이곳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밤엔 모기장을 치고도 벌레에 뜯기던 때다. 자처하고 왔지만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와 시골의 적막함을 마주했을 땐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예술한답시고 시골에 들어와 있으니 마을 터줏대감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잖은가. 예상과 달리 적대적인 마을주민들의

우리문화체험마당 수업에서 대나무카주를 연주하는 아이들

태도에 마음도 상하고 더러는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과 형님아우 하는 사이다.

마음이 동(動)하면 통(通)하는 법.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마을 일을 내 일처럼 함께 하기도 했고요. 마침 예술마을에 입주하게 된 이들 중 풍물패팀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크고 작은 공연을 열고 풍물 교육을 마련하기도 했지요. 반응이 좋았어요".

폐교에 학생들이 가득… 문화놀이터로 기능

공동화를 그리는 미술시간. 널따랗게 펼쳐진 광목천 위로 아이들 여럿이 달려들어 색칠을 한다. 이때 만들어진 천을 이어지는 연극놀이 시간에 소품으로 활용한다. 남은 천으로는 깃발을 만들어 야외 풍물놀이 시간에 신나게 휘날리며 북과 장구를 두드린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은 여러 장르를 융합한 수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연극놀이, 도예, 풍물, 탈춤, 공동화 그리기 등을 조합한 '우리문화체험마당' 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수업구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경북지역 외에도 타 지역 학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매년 마을주민을 위한 행사도 연다. 가구 별로 마을의

우리문화체험마당 선명달춤 시간

온 가족이 전시, 공연을 보며 문화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다.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적 여유가 없는 마을 주민들을 배려한 금수문화예술마을의 연례행사다.

해마다 여름방학 시즌인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경북지역 대학 동아리들의 방문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건물 내 숙식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대학 풍물패 동아리를 비롯한 여러 문학단체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 전기사용료 일정부분만 부담하면 되기에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동네 어르신들은 조용한 마을에 청년들이 나다니니 마을에 활력이 생겨 흐뭇해하고 학생들 또한 자연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전통탈 장점 살린 작품 연출하고파

마을일로 바쁜 그도 일 년에 꼭 연극 두어 편씩은 연출한다. 여러 지역의 연극제에 초청받아 참가한다.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그의 성향답게 연출작으로는 〈저 놀부 두손에 떡 들고〉, 〈꼬리뽑힌 호랭이〉, 〈심청〉, 〈노동자의 햇새벽〉 등 창작탈춤과 마당극이 주를 이룬다.

이를 설명하듯 사무실 한켠엔 장난스런 표정의 전통 탈들이 즐비해 있었다. 민바가지에 어떻게 이런 재미난 표정을 입혔을까 절로 궁금해진다.

그는 인터뷰 내내 진통탈 예찬론을 펼쳤다. "탈은 비대칭이에요. 좌우 다른 감정을 나타내지요. 각도 마다 표정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화려한 분장도 탈 자체가 주는 무대 압도력을 따라가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우리 전통 탈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작품을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대표라는 직함에 최재우 촌장은 어딘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였다. "이 학교의 주인은 마을주민들입니다. 마을주민들과 그들의 선조들이 남몰래 쏟아 부은 피땀과 희생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다만, 농사가 생업인 바쁜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 마을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금수문화예술마을 덕에 얻게 된 예술인으로서의 행복, 문화를 나누는 보람 모두 자신에게는 너무 큰 혜택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은 올 가을 겨울이 지나면 열다섯 살이 된다. 돌아보면 언제나 시작은 보일 듯 말 듯 한 작은 점에서 출발한다. '지역', '마을', '문화', '예술'. 이 작은 점들이 관심을 통해 점점 생명력을 갖게 되고 결국엔 마을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됐다.

내년이면 금수문화예술마을에 마을어르신들의 문화 사랑방이 될 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 곳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손두부를 만들고 이를 체험프로그램화해 참여주민들에게 수익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 해마다 찾아오는 '금수국민학교' 졸업생들은 얼마나 뿌듯할까.

글 박유나 · 주선애

사진 김석화, 금수문화예술마을

금수문화예술마을이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문화이용권' 아시나요?

금수문화예술마을은 폐교를 진정한 지역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한 단계 넓은 범위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생활 기회제공만이 아닌 문화소외자에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다. 문화이용권은 지역문화 인력을 키우고 문화복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에도 성과를 낳았다.

문화이용권 제도는 경제 · 사회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제약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우 등에게 공연, 전시,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등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까운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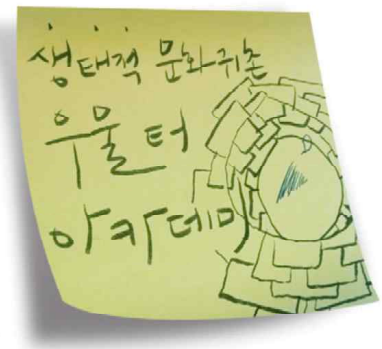
경북문화이용권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복지를 누리고 있다.

문화귀촌 고민한다면? 여기 모여라

'우물터' 공감토론 현장

지역탐구생활 시간

생태적 문화귀촌 지향하는 '우물터'



'우물터'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을 긷는 장소이자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문화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는 활명수 같은 물일 것이다.
텃밭을 일구며 만화를 그리고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 시골학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은 사람, 문화귀촌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산과 바다 중 나와 맞는 곳은 어딘지, 귀촌 후 마을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물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물터'의 총괄기획자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이광준 소장과 최미경 문화귀촌 활동가가 인터뷰에 참여했다.

Q 반갑습니다. '우물터'는 어떤 곳인가요?

2012년 4월 '지역과 문화의 새로운 활력소-귀농, 귀촌, 문화귀촌'이라는 주제로 공감도론을 펼친 이래, 공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시민단체인 '문화연대'에 속한 준 독립기구 시민자치문화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정식으로 우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를 표방하는 플랫폼답게 우물터의 회의나 강의는 센터 사무실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시민문화공간들을 담방하면서 이뤄집니다. 올해는 민중의 집이나 남산의 해방촌마을에서 주로 강의와 회의가 이뤄졌죠.
지역소개 아카이브, 문화귀촌자 지도, 자립기술 공유 플랫폼, 마을 생태지도 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강생들이 농어산촌지역 한 곳을 지정해 탐방한 후 그곳의 공간과 관계, 기술 등을 연결하면서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지요. 생태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각자에 맞는 삶의 방식과 지역, 공동체를 찾아가며 참된 '나'를 알아가는 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우물터'는 대안적이면서 특별한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보통의 아카데미 강의 방식과는 거꾸로입니다. 수강자들 스스

로가 문화귀촌에 필요한 사료를 찾고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참여자들 각자에게 관심 있는 문화와 지역에 관해 충분히 리서치 해 온 자료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 후 참여자들 간 의견과 정보교류가 이뤄지고 멘토 강사들의 짧은 강의가 이어집니다.
강의 공급자는 바로 문화귀촌을 공부하는 수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런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또 다른 삶의 방식인 문화귀촌을 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됐지요.
강사들은 난지 문화귀촌에 컨설팅 역할만 합니다. 이밖에 생태학이나 생태문화, 지역문화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구요.

Q 우물터 참여자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지난해 우물터 문화귀촌 지역탐구생활에 참여했던 분 중에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완주군 비비정에 농가레스토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정착한 분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에서 지역텃세가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은데, 별자리를 보는 기술이 탁월했던 그분은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별자리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말동무가 돼 주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마을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사로 나서기도 하고…. 도시 현대인이 잃어버린 '듣는 기술'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곳에서 매실을 수확하며 재미난 음악축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Q 문화예술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술가의 성향이나 창작 방향에 따라 도시환경이 맞는 사람, 농촌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진 않다고 보는데,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도 · 농간 환경적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니까요.

Q 창작과 공동체 생활, 두 가지 모두 잘하기 위해 꼭 갖춰야할 마인드가 있다면?

'열린 마음' 입니다. 도시인은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 공동체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급하게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 생태적인 방법이라고 계몽적인 태도로 접근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서로 간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은 도시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기에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조화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지역의 생태, 전통, 관습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말이죠.
귀촌을 희망하는 예술인이나 단체가 내가 가려는 지역에 대해 알고 싶을 때 향토사학자나 전국의 지방문화원의 연구 기획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문화원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문화귀촌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시생활이란 필연적으로 과중한 노동이 따른다. 또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소비도 뒤따른다. 우물터의 이광준 소장과 최미경 활동가는 생태적 문화귀촌의 '생태'란 소비보다 생산과 밀접하다고 말한다. 문화와 관련 된 것들을 직접 생산하며 함께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는 건강한 생태가 이뤄지는 세상을 바란다는 것이다.
농촌에도 문화의 힘이 절실한 이때, 우리는 그런 우물터가 필요하다.

글 김미화 · 박유나

사진제공 우물터 아카데미

도심속 별천지, 부암동으로 호젓한 나들이

서을 도심에 도성 밖 경승지로 이름 높았던 곳이 있다.
북한산과 북촌, 서촌에 가려 그 진가가 뒤늦게 알려졌지만, 그래서 더 고풍스러운 곳. 바로 부암동이다.
조선시대 왕족과 사대부들이 별장과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던 이곳은 역사도 사람도 살아 숨 쉰다. 서울의 대부분을 회색빛 고층빌딩이 차지했지만 이곳만은 자연과 문화, 역사의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서울의 숨은 속살을 보러가자. 여행지는 북악 옆 동네, 들어봤음직 하면서도 낯선 이름. 부암동으로….

부암동, 어떻게 가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 조금 걸으면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녹색 시내버스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번을 타고 '하림각' 정류장에 내린다.
세검정 삼거리, 상명대 방향으로 걸어 내려 가다보면 냇물이 나오고 다리를 건너면 세검정 정자가 보인다.

코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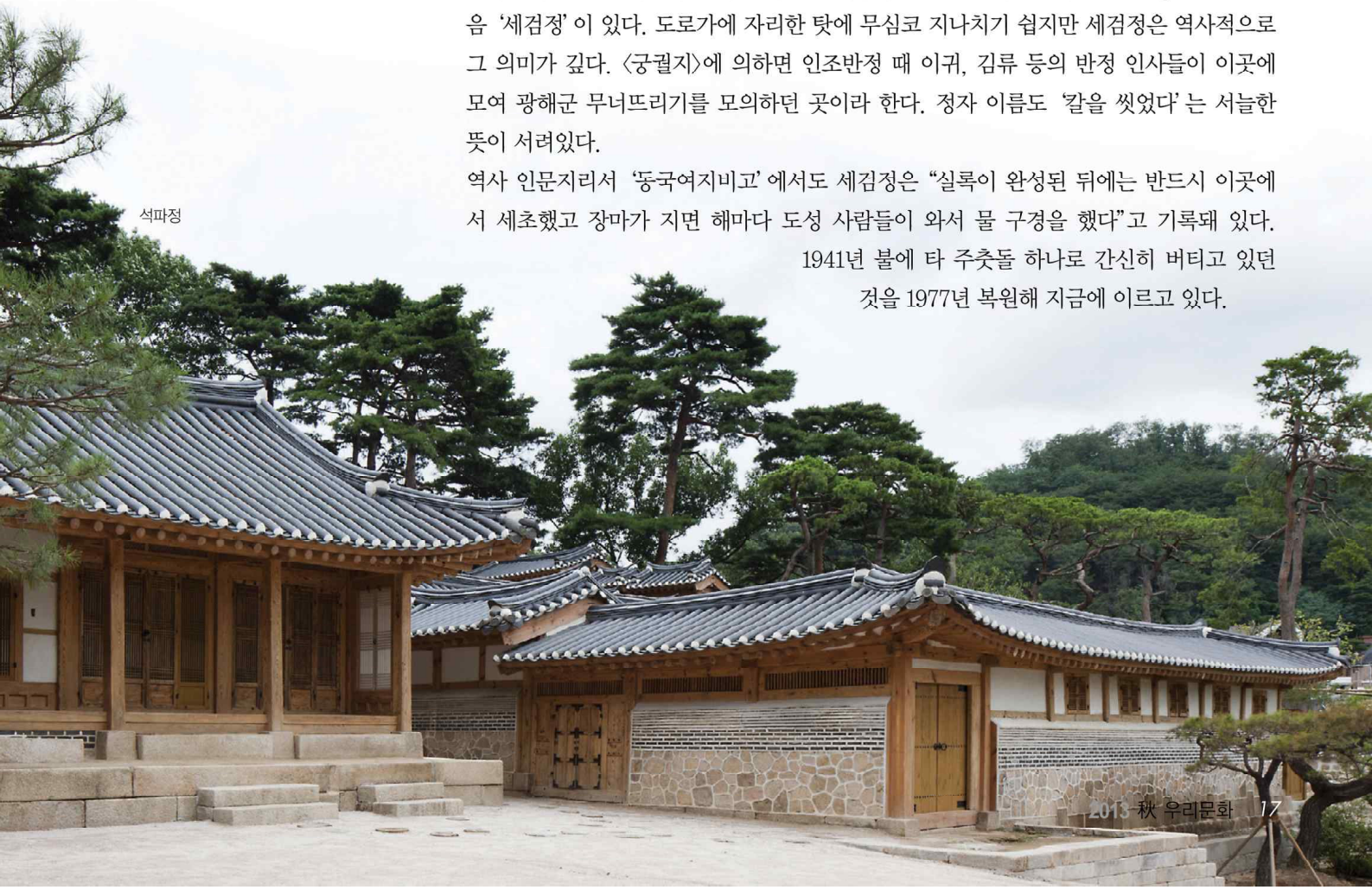
세검정→홍지문→석파정 별당 →서울미술관, 석파정→현진건 집터→윤동주 시인의 언덕(청운공원)→창의문→환기미술관→'커피스린스1호' 촬영지→백사실→계곡→세검정.

부암동을 아시나요?

과연 여기가 서울이 맞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심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청와대를 품은 북악산 때문에 개발바람이 비껴가면서 도심 중 녹지의 비율이 높다.
그런 이유일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동네라는 것 또한 특별하다.
부암동은 일반적인 서울의 모습과 그 격을 달리한다. 곳곳에 다양한 유적들이 잘 남아있다. 2011년 한국관광공사가 '4월의 가볼만한 여행지'로 선정한 다섯 곳(전남 보성,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제주, 서울 부암동) 중 하나이기도 하다.
탕춘대성의 홍지문과 인조반정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세검정, 흥선대원군이 별장으로 쓰던 석파정, 한양도성과 창의문, 그리고 오성과 한음의 오성으로 알려진 백사 이항복과 추사 김정희의 별장이 있던 생태보존지역 백사실 계곡 등이 그 중요한 예들이다.
도심에 어떻게 이런 곳들이 한데 모여 있는지 길을 따라 나서보자.
세검정에서 석파정 별당과 서울미술관을 거쳐 부암동주민센터 옆길로 들어선 후 청계동천을 둘러본 뒤 서울성곽을 따라 윤동주문학관, 창의문, 환기미술관, 백사실계곡을 거쳐 다시 세검정으로 내려선다. 일명 '생태문화 탐방길'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코스는 이곳저곳 눈도장을 찍으며 여유 있게 걸으면 약 4~5시간 정도 걸린다.

'칼을 씻다'… 그래서 세검정(洗劍亭)

백사골이 북한산 계곡과 만나 홍제천을 이루며 부암동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그 중간 즈음 '세검정'이 있다. 도로가에 자리한 탓에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세검정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다. 〈궁궐지〉에 의하면 인조반정 때 이귀, 김류 등의 반정 인사들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 무너뜨리기를 모의하던 곳이라 한다. 정자 이름도 '칼을 씻었다'는 서늘한 뜻이 서려있다.
역사 인문지리서 '동국여지비고'에서도 세검정은 "실록이 완성된 뒤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세초했고 장마가 지면 해마다 도성 사람들이 와서 물 구경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1941년 불에 타 주춧돌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것을 1977년 복원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석파정

세검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상명대 앞으로 이동하면 서울 도성과 북한산성을 잇는 탕춘대성의 성문, 홍지문(弘智門)이 보인다. 여기서 서쪽으로 더 가면 '옥천암(玉泉庵)이란 암자와 함께 고려 때 조성된 하안 불상인 보도각백불이 나온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할 때 기도를 올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대원군의 부인이 아들 고종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니 한 왕조의 처음과 끝을 살았던 왕족들의 기원이 모인 곳이기도 하다.

대원군의 사랑채 '석파정'

세검정 삼거리에서 경복궁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고풍스런 기와집이 눈에 들어온다. 그 집이 부암동의 이름난 한식당 '석파랑'이다. 석파랑은 일본에 빼앗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천신만고 끝에 품에 안고 온 일화로 유명한 서예가 소전 손재형(1903~1981) 선생이 거처로 삼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부암동 맛집으로 유명하다. '석파정'에서 옮겨다 놓은 사랑채가 자리한다.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정. 초입 암반에 새겨진 '물을 품고 구름이 발을 치는 집'이라는 글처럼 산수와 계곡을 배경으로 옛 서울의 경승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래 7채의 건물로 구성됐던 석파정은 오늘날 안채, 사랑채, 별채와 같은 살림채와 중국풍 정자 등 4개 동이 남아 옛 조상들의 풍류와 예술적 정취를 전해준다. 현재 1974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됐다.

별당 문을 슬며시 열면 꼿꼿이 앉아 난초를 그리고 있는 대원군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며 발걸음을 뗀다.

석파정에서 나와 부암동주민센터쪽으로 길어 나가면 북악산 길 초입, '자하문'으로도 불리는 '창의문'이 위엄을 지키고 서있다. 여기서 '자하'란 보랏빛 노을을 뜻하는 단어다. 인근에는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故김환기 화백의 '환기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여기서 인왕산 쪽을 바라보면 청운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윤동주시인의 언덕이 있다. 공원으로 오르는 입구에 윤동주문학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 창의문에서 부암동 능금나무 길을 따라 10분정도 오르면 드라마 〈커피프린스1호점〉 촬영지로 유명한 '산모퉁이 카페'가 있다. 북악산

자락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해 있어 조망이 일품이다.

이제 곧 나타날 백사실계곡. 그곳으로 향하는 오르막 산책로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벽화 겸 이정표는 사진 한장은 꼭 찍고 가는 '포토존'이다.

1

도룡뇽이 꼬물거리는 '서울의 마지막 비밀정원'

부암동에 자리한 명소 중 가장 백미라 하면 북악산 서북쪽에 안긴 '백사실계곡(백석동천)'이 아닐까. 백석동천의 '동천'은 경치가 빼어난 곳, 신선이 사는 별천지와 같은 곳을 뜻하는 말이다.

2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숲과 계곡물은 강원도 청정지역 못지않게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서울의 마지막 비밀정원'으로 불린다. 계곡 입구에서 도보 여행객들을 반기는 것은 '도룡뇽 서식보호' 안내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도룡뇽과 가재, 버들치가 살아간다. 천연기념물인 까막딱따구리도 종

종 모습을 드러낸다.

계곡 밑으로 내려가면 'ㄱ' 자형 건물터에 주춧돌만 남은 별장 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이 별서터 유적이 한때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사가 터만 남은 백석정 부지를 사들여 새로 건립했다는 것이다. 추사의 '완당전집(阮堂全集)'에 "선인이 살던 백석정을 예전에 사들였다"라는 내용과 주석에서 "나의 북서(北墅)에 백석정 옛터가 있다"라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추사가 터만 남은 백석정 부지를 사들여 새로 건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창한 물푸레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간다.

긴 오르막길을 통해 다다르는 백사실계곡은 가벼운 나들이로는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벗 삼는 여유만 챙긴다면 오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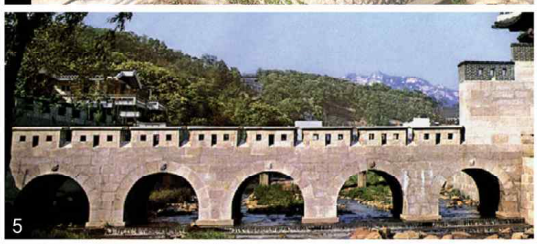
도심에서 떠나는 도보여행이 꼭 사진을 찍고 무엇을 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은가. 그런 점에서 부암동 한 바퀴 도보여행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다. 산자락을 내려오면 다시 세검정이 반긴다. 고된 걸음 수고했다고.

글 고민정 · 박유나

사진 문화재청, 서울미술관, 정준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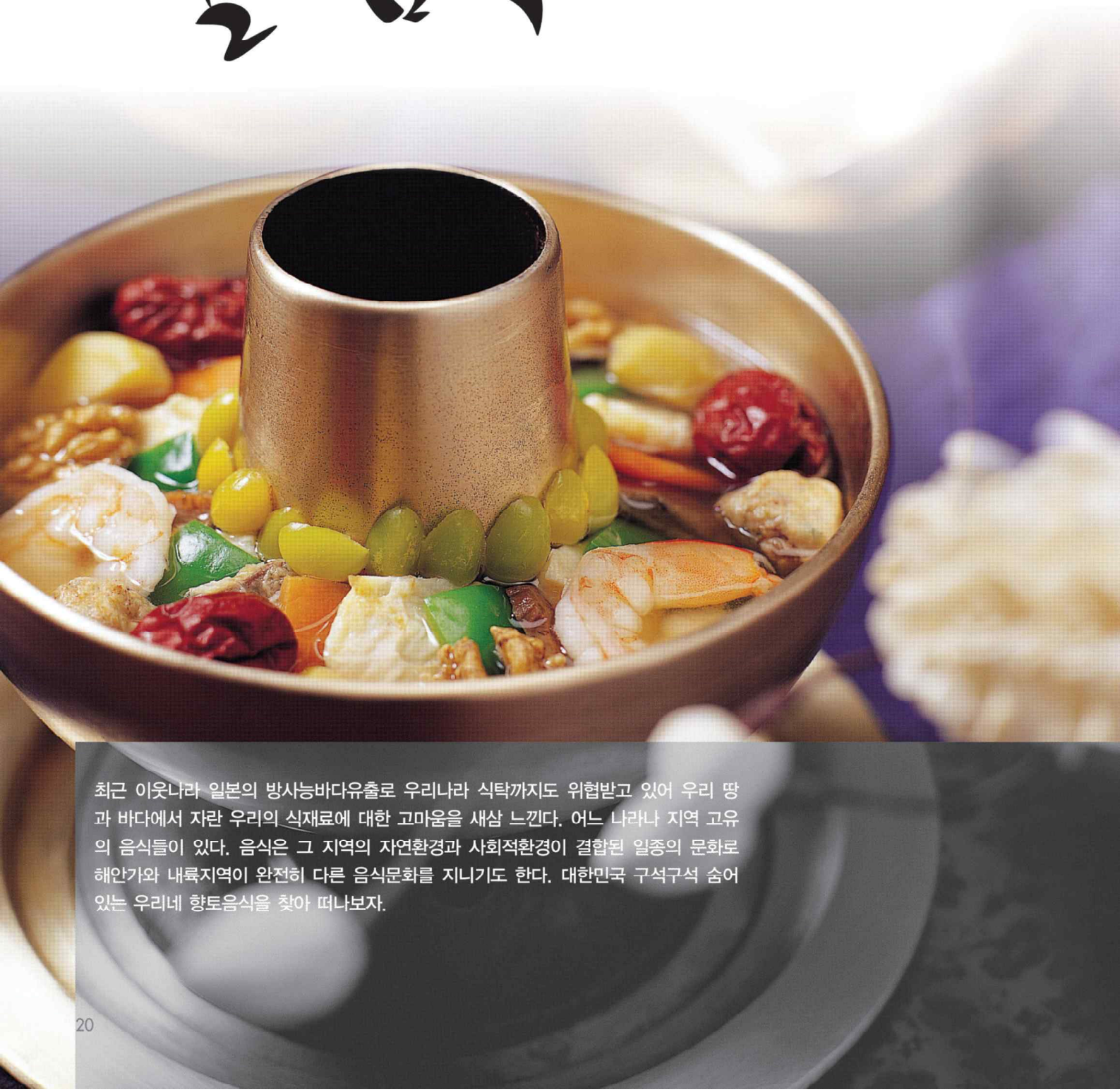

5

6

7

1 백사실계곡
2 백사실계곡 도룡뇽서식지 표지판
3 백사실계곡으로 향하는 산책로의 '고진감래' 벽화
4 옥천암마애좌상
5 흥지문 및 탕춘대성
6 세검정
7 창의문(자하문)

아름다운 전설과 지역의 맛이 깃든 팔도음식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방사능바다유출로 우리나라 식탁까지도 위협받고 있어 우리 땅과 바다에서 자란 우리의 식재료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낀다. 어느 나라나 지역 고유의 음식들이 있다.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환경이 결합된 일종의 문화로 해안가와 내륙지역이 완전히 다른 음식문화를 지니기도 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 있는 우리네 향토음식을 찾아 떠나보자.

입이 즐거운 '서울 신선로'

서울은 옛 조선시대의 수도로 궁중음식문화가 발달했고, 왕족과 양반계층이 많았기에 사치스럽고 화려한 음식들도 많았다. 서울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신선로인데 원래 '신선로'는 냄비를 지칭하고, 음식이름은 입을 즐겁게 한다는 뜻에서 '열구자탕(悅口子湯)'이라고 했다.

신선로 바닥에 양념한 고기와 무를 깔고 그 위에 버섯, 달걀지단, 미나리, 생선 등을 색을 맞추어 고르게 돌려 담아 맑은 육수를 넣어 끓이면 각 재료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또한 신선로 그릇 중앙 화통에 숯을 피워, 끓는 상태로 상에 내어 먹는 동안에도 식지 않도록 한 지혜로운 전통음식이다. 게다가 재료의 다양함과 색의 아름다움이 입과 눈을 즐겁게 한다. 신선로는 중국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음식으로 재탄생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은어장국에 말아먹는 '안동 건진국수'

안동 건진국수는 밀가루와 콩가루를 반씩 넣어 반죽해 은어 달인 징국에 말아먹는 국수다. 안동은 지역적으로 낙동강 상류에서 서식하던 은어가 풍부했기에 은어장국을 사용한 것이다. 끓는 물에 삶은 국수를 건져내 찬물에 헹군 다음 국수를 은어장국에 말아 놓은 것이 건진국수다. 건진국수의 특징은 밀가루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콩가루까지 사용해 영양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건강까지 챙긴 안동사람들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음식이다.

효자백정 전설 어린 '함양 갈비'

함양군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백정의 비석이 있다. 옛날 안의현 관북마을에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조귀천이란 자가 살고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아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일기도를 드렸는데 백일 째 되는 날 꿈속에 도사가 나타나 '천일동안 소의 간을 매일 아비에게 드리면 눈을 뜨리라' 고 했다. 아들은 그날로 글공부를 포기하고 스스로 백정이 되기를 자청해 도축장에 들어가 매일 소간을 아비에게 드렸다. 마침내 천일이 되는 날 집으로 가는데 폭우가 쏟아져 강이 범람해 집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아들은 통곡을 하는데 하늘도 그 효심을 알았는지 갑자기 강물이 갈라져 길을 내주어 마지막 간을 아비에게 드리고 아비는 눈을 뜨게 됐다.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조귀천이 사는 금호강가에 효자비를 세우라는 왕명을 내렸고 이곳에 '효자백정조귀천지려(孝子白丁趙貴千之

閭)' 라는 효자비를 세워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그 시절부터 함양의 안의는 소로 유명한 고을로 알려졌다. 지금도 함양 안의는 맛과 아름다운 전설이 함께 전해지고 있는 왕갈비로 유명하다.

300년의 역사를 지닌 '평창 메밀전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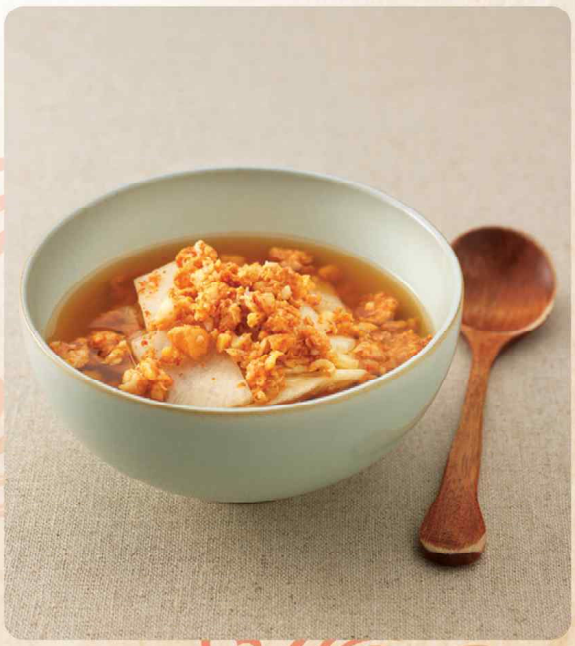
강원도는 감자, 메밀 등 구황작물을 많이 재배했던 곳이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생육기간이 짧은 메밀이나 감자 등으로 만든 간단한 요리법으로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많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무렵' 에 봉평의 눈부시게 하얀 메밀꽃은 당시 굶주림에 익숙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없는 기다림을 주는 꽃이었을 것이다. 먹거리가 풍요롭지 못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메밀전병 한 줄에 고마움을 느끼고 싶다.

강원도에서 유명한 메밀전병은 기록상으로도 역사가 오래된 음식중 하나다. 1680년 '요록' 에서는 '견전병' 으로 나와 있고, 1938년 '조선요리' 에서 '총떡' 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메밀가루를 소금간해 반죽한 후 프라이팬에 두르고 그 위에 양념한 소를 올려 돌돌 말아 부친 음식이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음식으로 '빙떡' 이 있다.

해산물에 숙성시킨 김치찌개 '서산 게국지찌개'

충청남도는 서해안에 접하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고 내륙지방은 곡식과 채소들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 지역 음식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계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그중 게국지찌개는 서산 일부지역에서만 믹어오던 음식으로 '1박2일'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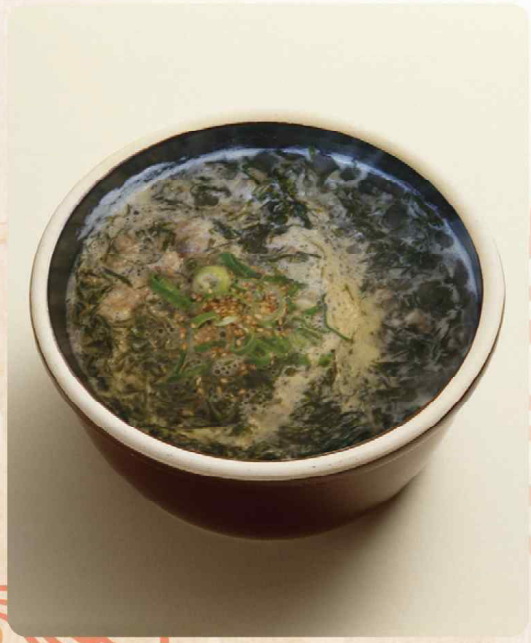
원래 게국지는 김치의 일종으로 서해안에서 많이 나는 게나 새우등의 해산물을 넣고 숙성시킨 김치를 말한다. 즉 게국지찌개는 충청도 김치찌개의 일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반적인 김치찌개보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비결은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꽃게와 무, 배추를 이용한 재료의 맛이라고 할 수 있다. 게국지찌개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으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3대 음식 '전주 비빔밥'

전라도는 평야지대의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음식인심과 맛이 뛰어난 지역이다. 조선왕조의 전주이씨 본관 지역으로 양반풍의 음식이 발달했고 상 차릴 때 찬반의 가짓수가 많으며 기후가 따뜻해 음식의 간이 강하고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다. 전라도 음식으로는 전주 콩나물국밥, 광주 애저찜 등 다양하지만 단연 음식제왕의 자리는 전주 비빔밥이다.

전주의 음식점에서 비빔밥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밥과 재료가 비벼진 상태로 나오는 말 그대로의 '비빔밥' 이고 다른 한가지는 밥과 재료들이 따로 나와 각자 취향대로 비벼먹을 수 있는 '비빌밥' 이다. 비빔밥이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비빌밥은 개량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있다. 전주는 놋그릇을 데워서 온기가 유지 되도록 한 후 그 안에 비빔밥을 넣어 손님상에 낸다. 조선시대 요리서인 '시의전서' 는 비빔밥을 골동반으로 표기했는데 골동반이란 이미 지어놓은 밥에다 갖가지 찬을 섞어서 한 곳에 비빈 것을 말한다. 전주 비빔밥은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주름이 좌~악 펴지는 '제주 몸국'

제주도 풍습에는 결혼식, 장례식 같은 큰 일에 돼지를 잡는 문화가 있다. 예전에는 자식들 혼기에 맞춰 미리 돼지를 기르기도 했었다니 제주도와 돼지의 상관관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돼지를 몇 마리 잡았는지를 듣고 결혼식이 크고 작은 지 가늠했다. 제주도에서는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는 것을 '잔치 믹으레 간다' 라고 한다. 이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몸국' 이다. 몸은 모자반을 일컫는 제주어다.

사흘내내 큰 가마솥에 돼지를 넣어 삶고 그 우러난 국물에 몸을 넣어 끓이면 몸국이 된다.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의 일종인 몸은 그 효능이 지금까지도 연구 중에 있는데 노화방지와 암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몸국은 어려운 시절 손님들을 맞이하던 제주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배어있는 서민음식이다.

글 고민정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지방문화원 팸투어 성공하려면

참가자 세분화하고 기업과 손잡아라

Familiarization Tour. 팸투어의 영어 원어다. Familiarization는 '친숙해지기', Tour는 '여행'을 뜻한다. 그래서 Familiarization의 팸(Fam)을 떼어내 투어(Tour)와 붙여 팸투어라 부른다.

팸투어는 국가정부, 지자체, 기업체, 여행사들이 언론인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을 데리고 특정한 곳으로 초청해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곤 한다. 최근들어 지자체는 축제나 관광명소, 문화상품, 행정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를 비롯 여행사, 오피니언 리더, 주부 등 일반인들을 초청한다. '(지역과) 친숙해지는 여행'이란 뜻을 지닌 팸투어는 쉽게 말하자면 사전답사여행이다. 이는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는 도시인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 직접 느끼고 배우는 신선한 체험여행이기 때문이다.

체험여행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낳기 마련이고 이 긍정적인 평가는 언론인의 경우 호의적인 체험기사로 구체화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입소문으로 나타난다.

주최측 입장에서는 이만큼 부드러운 홍보수단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동해문화원이 개최한 팸투어 모습

동해 추임촛대바위 팸투어단

평창수림대마을을 탐방하고 있는 팸투어단

나룻배 타고 하회마을로 가고 있는 언론인 팸투어단

신문-방송 같이 묶지 마라

팸투어 대상자들은 언론에서 부터 시작해 여행사, 오피니언 리더, 주부 등 다양하다. 따라서 홍보목표에 따라 참가자 모객을 달리해야 한다. 신문과 방송, 잡지, 라디오에 크게 뉴스화 시키고 싶다면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해야 한다. 기자들 역시 이런 기회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이다. 다만 팸투어 참가 여부는 바쁜 언론사 일정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밖에 여행사나 오피니언리더,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행사 역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보인다. 바쁘게 생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 주부들도 마트나 백화점에서만 보던 제품의 원산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생산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초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같은 언론일지라도 신문과 방송은 취재 형태가 다르므로 분리하는 게 좋다. 신문은 인터뷰하고 사진 몇 장을 찍으면 되지만 방송은 여기 저기 그림이 될만한 꺼리를 찾아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한다. 이왕이면 일간지는 일간지끼리 묶고 주월간지는 주월간지끼리 묶는 게 좋다. 서로가 원고 마감일에 차이가 있고 동료의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과 여행사 관계자를 한데로 묶으면 공감대가 달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주부들의 경우 생활 패턴과 개성을 파악해 모객해야 한다.

사전 홍보이벤트 개최 중요

몇해 전 경북 안동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리는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8월 중 팸투어를 가졌다. 이 행사에 참가한 기자들은 나룻배를 타고 하회마을로 건너가 앞으로 열릴 축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때 안동시는 작은 공연을 미리 선보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전 이벤트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언론노출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사전 이벤트를 안할 경우 사진자료는 과거의 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적정한 크기로 기사노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전 홍보이벤트를 하면 앞으로 열릴 축제의 일부를 소개하는 정보형 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유적지, 박물관, 장인 인터뷰 등도 짜임성 있게 프로그램에 넣으면 좋다.

올봄 강원도 평창은 강원도 및 타지역의 사람들에게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먹거리 등을 경험하게 하고 더불어 지역 및 지역상품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영월군도 지난 8월 2일부터 영월읍 동강둔치 일원에서 '동강에서 놀고 지고!'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동강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동강축제 홈페이지(www.ywfestival.com)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 이튿날인 3일부터 사흘간 하루에 40명씩 모두 12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동강축제 메인 행사장인 동강둔치를 출발해 영월 서부권역에 위치한 인도미술박물관과 미디어기자박물관 · 선암마을 뗏목체험 ·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을 둘러보는 팸투어를 가졌다. 동강축제를 계기로 박물관고을 영월을 알리는 팸투어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타지인들에게 영월을 동강이라는 자연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은 박물관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더해주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홍천군도 지난 8월 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여성협의회 회원 160명을

초청하는 이른바 '홍천팸투어'를 실시했다. 홍천의 관광자원 및 축제, 농산물을 홍보하는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진 팸투어 프로그램은 찰옥수수축제 행사 관람, 장뇌삼 재배 농가 방문 및 장뇌삼 캐기 체험, 늘푸름 홍천한우 프라자와 강원인삼조합 · 홍천산림조합판매장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홍천군은 관광자원 홍보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토기업인 하이트진로강원공장 견학과 맥주 체험 행사도 끼워 넣었다.

동해문화원, 힐링 컨셉으로 팸투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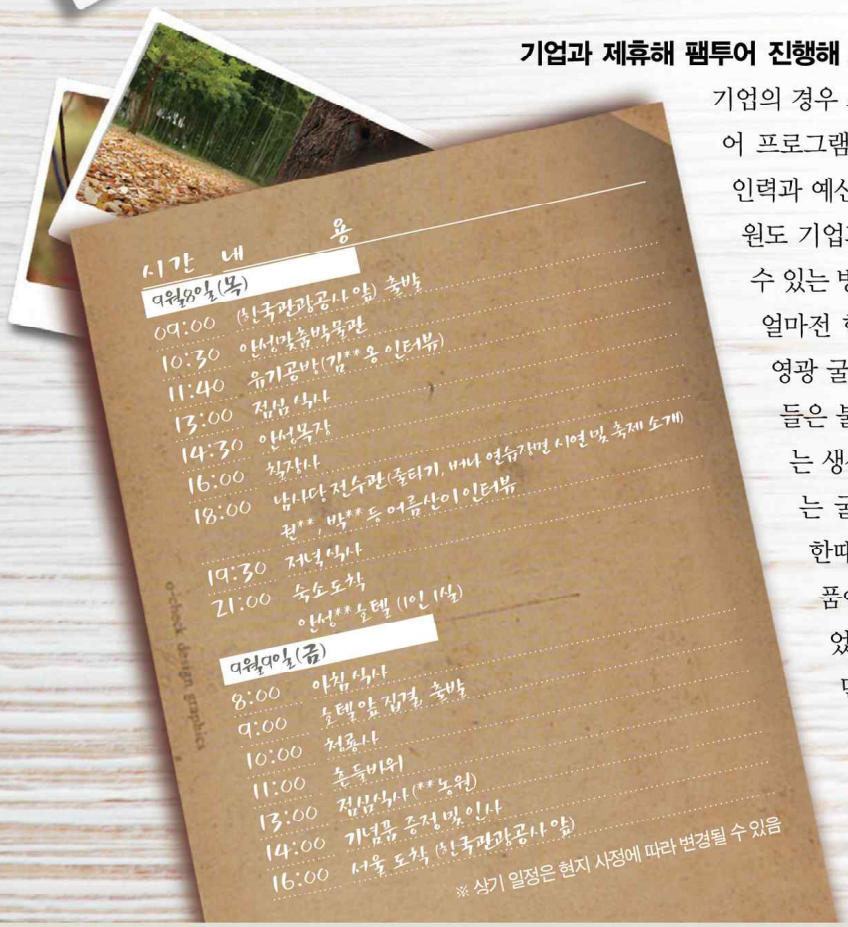
특히, 동해문화원은 힐링관광을 컨셉으로 지난 5월 24~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및 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에는 추암촛대바위, 감추사~한섬간 해물금 숲길, 논골담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숙박체험을 한 후 등대콘서트를 감상했다. 2일차에는 일출체험, 천곡동굴 탐방에 이어 무릉계곡 명상체험 투어가 이어져 하이라이트를 이뤘다. 일반적인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명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를 계기로 동해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향후 연계관광 및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시는 팸투어를 통해 동해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북아의 지중해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 1,000만명 유치목표달성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팸투어는 세계적인 언론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좋은 홍보 툴이기도 하다. 외신기자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오래 체류한 기자들의 경우 한국말에 능통하고 특히, 중국 특파원의 경우 한국의 지역사정에 밝기도 하다. 몇해 전에 경기도 안성시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주한 외신기자들을 부른 적이 있다. 45인승 버스 한 대로 안성을 방문한 외신기자들은 남사당 바우덕이 줄타기 공연장과 청룡사, 호수 등을 관람했다. 급기야 팸투어 첫날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며 의기투합한 안성시 공무원들과 주한특파원들은 축구친선경기를 갖기도 했다.

홍보대행사와 협업하며 노하우 축적하는 것도 방법

팸투어는 언론사를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팸투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언론홍보 효과를 크게 이룰 수 있다. 기자가 체류하는 시간에 비례해 기사도 크게 나온다는 말도 있다. 또한 주부들이나 오피니언리더들도 현지에 모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팸투어는 겉으로는 일반 여행 가이드 업무와 비슷하지만 주목도가 높은 테마 선정과 홍보의 앵글 포착, 소통의 장 마련 등 전문적인 홍보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팸투어 개최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팸투어 참가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팸투어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각 문화원들의 현실로 볼 때 쉽지많은 않다. 따라서 다른 업무와 겸업하며 팸투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럴 때는 팸투어를 수행할 수 있는 홍보대행사를 섭외해 자문, 모객, 진행, 사후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게 좋다. 이는 지역 출신의 사람만으로 팸투어 진행팀을 구성할 때 종종 빠지기 쉬운 주관적 시각을 극복하는데도 좋다. 팸투어 대상자가 외부

평창군 팸투어 참가자들이 백용동굴 생태체험학습장을 탐방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밖을 보기 보다는 밖에서 지역을 보는 객관적 시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옳다. 문화원과 전문가 집단이 협업 과정을 통해 팸투어를 진행하다 보면 매뉴얼이 구축되고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축적돼, 종국에는 문화원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팸두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업과 제휴해 팸투어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기업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생산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노력한다. 반면 기업과 달리 문화원의 경우 인력과 예산 문제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문화원도 기업과 제휴를 맺으면 적은 비용으로 축제나 문화행사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얼마전 현대백화점의 팸투어에 참가한 적이 있다. 팸투어 버스는 영광 굴비공장을 향했다. 당일치기 여행으로 떠난 팸투어 참가자들은 불갑사를 구경한 후 굴비공장을 견학하며 굴비가 만들어지는 생산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맛있는 굴비 요리로 점심을 하고 주변 해안도로를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아쉬움이 들었다. 그것은 제품에 대한 소개는 있으나 문화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것이었다. 문화원 관계자가 나와 굴비에 얽힌 유래를 설명해 주면 더욱 품격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 강민철 홍보컨설턴트

사진 강민철, 동해문화원, 평창그린투어사업단

팸투어 진행 요령

잘 아는 곳도 사전답사 철저히… 설문지 만들어 고객만족도 조사

팸투어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나면 서둘러 홈페이지에 참가방법을 고지한다. 이와함께 시·군 유관기관에도 배너광고 등의 게재를 요청한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언론사에 초청장을 보낸다. 그리고 참가 여부를 1, 2차에 걸쳐 직접 묻는다.

자주 가던 곳이라 할지라도 사전답사는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시간과 거리,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필자는 몇해 전에 팸투어에 참가한 언론인들과 문화유적지를 방문했는데 전날 밤 누군가 '큰일'을 보고 간 뒤라 당황한 적이 있다. 다행히 언론관계자들이 눈치를 못 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차량을 섭외할 때는 좌석을 넉넉하게 잡아둬야 한다. 수하물도 있기 때문에 두개 의자에 한명 정도 앉게 하고 예산이 뒤따른다면 1인1실 숙박을 원칙으로 편한 여행을 도모한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가능한 동일하게 정하며 우천시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 대안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팸투어는 여론수렴의 창구이기도 하다. 팸투어가 끝나고 돌아갈 때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어 고객 만족도 조사나 마케팅 리서치를 해보는 것도 좋다. 향토음식점에서 지역의 고유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단한 선물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도 지역의 정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홍보라 할 수 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할아버지 할머님께 재실에서 감히 고하나이다…"

매년 음력 10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향토유적 제 11호인 오룡재에서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집성촌을 이뤄 살아온 남원 윤씨 참판공 오자등과파의 시제가 열린다.

'오사등과'란 5형세 모두 문·무과에 합격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특별히 벼슬과 쌀을 내리고, 죽으면 그 무덤에 제사를 지내주었던 문교제도가 있었다. 남원 윤씨 문중에서는 선조 때 12세 윤민신尹民新(1537~1610)의 아들 윤구, 윤서, 윤길, 윤철, 윤탁 다섯 아들 모두가 장원급제했다. 이때부터 그 후손들을 오자등과파(五子登科派)라 부른다. 조선 중기 문신 심수경은 수필집 '견한잡록'에서 4년 동안에 연이어 장원급제 했으니 그 부모가 더욱 뛰어나다고 말했다.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는 법.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식들을 잘 키워냈던 문중의 선조들을 잊지 않고 모시는 그 마음이야말로 자식 다섯을 내리 장원급제 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리라.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축문을 읊는 나지막한 목소리는 앞으로도 부모에서 자식으로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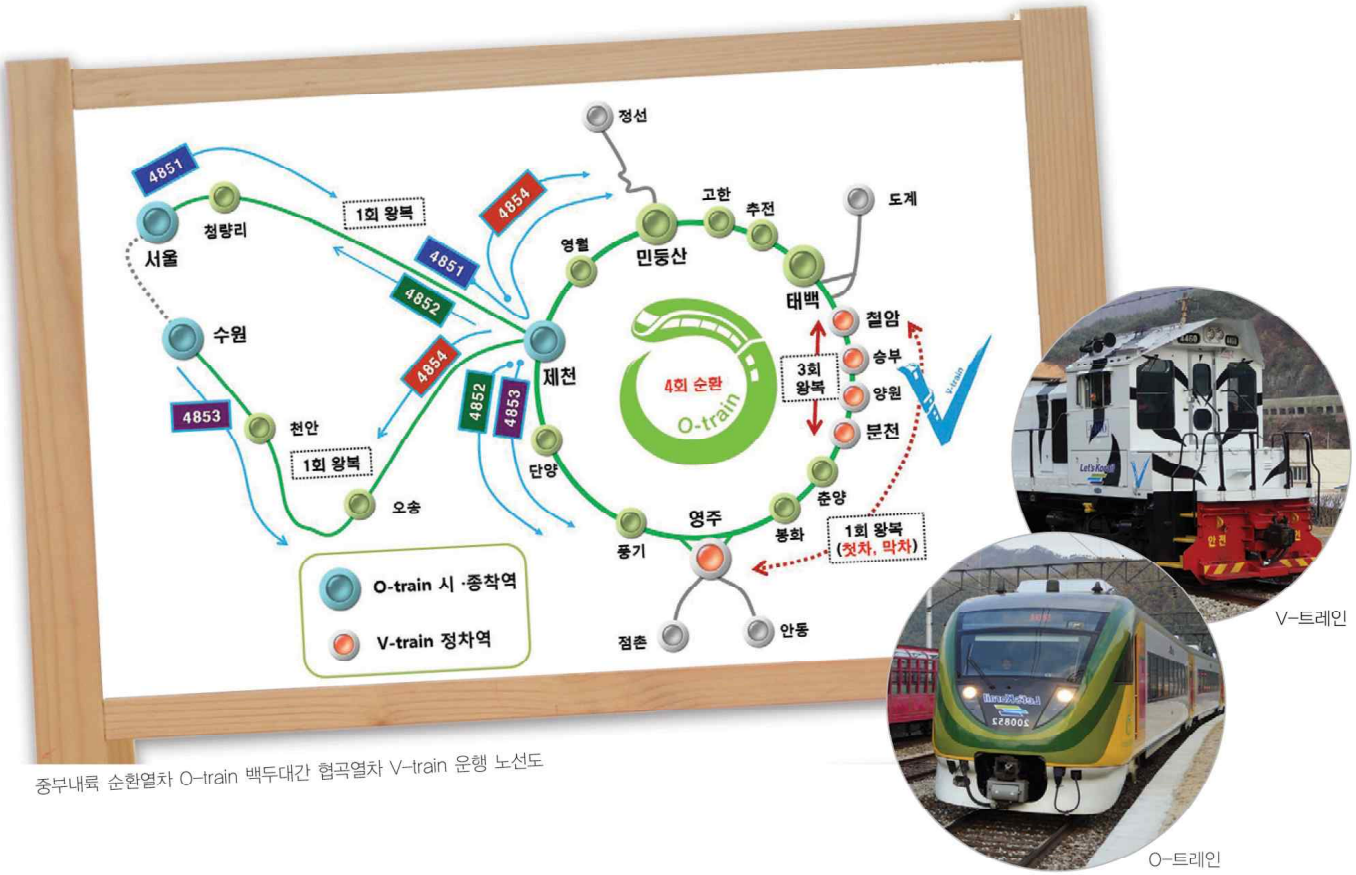
글 박유나

사진제공 ㈜역사만들기

O-train, V-train 타고

秋억 찾아 떠나는 기차여행

반가운 가을!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어느덧 저만치 물러서고 아침저녁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선선한 공기와 청명한 햇살이 가득한 가을은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한여름 뜨겁게 들끓었던 마음과 지친 일상을 차분히 내려놓고 기차에 몸을 실어보자. 느림의 미학이 느껴지는 기차여행을 통해 옛 시절의 낭만과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하루 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금이요, 돈이다.
바쁜 일상에 치이고 쫓겨 어린시절의 낭만은 잊은 지 이미 오래.
이럴 때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 백두대간 협곡열차(V-train)를 타고 산골짜기 마을들을 바라보며 떠나보자.



중부내륙 순환열차 O-train 백두대간 협곡열차 V-train 운행 노선도

지난 4월 운행을 시작한 '중부내륙순환열차(O-train)'와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때 이들 철도는 석탄,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며 경제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레저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관광상품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O-train 객실 내부에 전망 경관 모니터 설치

O-train은 대한민국 사계절을 모티브로 제작돼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순환구간을 1일 4회 운행하는 관광선용 열차다.

O-train의 'O'는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코레일의 첫번째 관광 전용열차라는 '넘버 원(One)'의 의미와 강원·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3도를 하나(One)로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존의 열차들이 관광열차로 일부 단장해 운행하던 것과 달리 차체를 완전히 뜯어서 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O-train은 본격적인 첫 관광전용 열차로 꼽힌다.

먼저 차내를 둘러보면 전망석을 비롯해 카페, 유아놀이방, 커플룸, 패밀리룸, 가족석 등 다양한 고객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특급관광열차처럼 모든 객실은 목조 느낌이 나도록 꾸며졌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실내조명 등 곳곳에서 관광객을 배려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커플룸은 실내 조명을 은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일본이나 유럽 특급관광열차 부럽지 않다.

특히 국내 최초 객실에 설치된 전망 경관 모니터를 통해 열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O-train은 제천-영주-태백을 순환하며 한번 순환하는데 4시간 50분 가량이 소요된다. 영동선, 태백선, 중앙선을 이어주는 유일한 징기열차기 때문에, 노신 내 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승객에게 유일한 철도 수단이기도 하다. 서울역에서 아침 7시 45분, 수원역에서 아침 7시 40분 출발한다.

한편 중부내륙관광열차의 운행으로 많은 지역의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최근 석탄·목재 등 관련 산업의 쇠퇴로 생기를 잃었던 지역이 관광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제천시, 관광명소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코레일에 따르면 제천은 중부내륙관광의 관문으로 O-train

관광객의 약 30%가 다녀갔다.

태백시는 O-train 도착시간에 맞춰 용연동굴, 검룡소, 구문소, 365세이프타운 등을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용연동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9호 석회암 동굴이다. 동굴내부에는 신비한 모양의 석순과 종유석, 석주, 동굴 진주, 동굴산호, 석화 등의 생성물들이 즐비하며 대형광장과 리듬분수는 자연 생성물들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천시도 하루 두 번 청풍문화재단지, 관광모노레일 등을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분천역에서는 30분 단위로 빌려 쓸 수 있는 '카 셰어링'이 인기인데, '불영 계곡' 등 명승지 관광을 카 셰어링을 통해 여유있게 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O-train이 지나는 태백시의 관광명소 용연동굴 내부 모습

V-트레인 내부모습

V-train 백두대간 협곡이 눈앞에…

V-train은 열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백두대간 협곡을 운행하는 국내 최초의 개방형 관광열차다. V-train의 'V'는 'Valley(협곡)'의 약자인데 글자 역시 협곡의 모양을 닮았다. 경북 분천을 출발해 양원-승부-강원 철암까지 이어지는 총 27.7㎞의 거리를 1일 6회 왕복 운행한다. 분천에서 철암까지의 운임요금은 8,400원(단, 영주-철암은 11,700원).

V-train은 시속 300㎞로 달리는 KTX가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10분에 걸쳐 천천히 달린다. 사람이 잠시 내렸다가도 뛰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다. 특히 경치가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분천-양원 구간에서는 더욱 천천히 가기 때문에 백두대간의 속살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치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

주는 듯한 V-train은 3량의 객차를 디젤기관차가 이끄는 미니 열차. 하지만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백두대간 협곡의 풍경만은 일품이다.

열차가 속도를 버리니 정겨운 소리가 탑승객을 맞는다. '철커덩 철커덩' 열차 바퀴가 선로의 이음매를 지날 때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머릿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흑백사진과 같은 추억을 뒤적이게 한다. 모처럼 짬을 내 기차에 오른 도시인들에게는 일상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달콤한 자장가가 되기도 한다.

협곡열차의 외관은 대한민국 백두대간을 누비는 백호로 표현했다. 내부는 자연풍광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살렸다. 특히 청정 자연과 하나가 되는 컨셉으로 객실을 설비해 시원한 에어컨도, 난방히터 시설도 없다. 심지어 화장실도 없다. 역에 정차할 때 신속히 볼일을 보고 돌아와야 한다. 열차는 역에 3~5분 정도 정차한다.

1호차는 일반객실, 2호차에는 카페가 마련돼 있다. 3호차 천정에는 형광 스티커로 별자리를 표시해 열차가 터널 30여개를 통과할 때면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객차는 주변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천장을 제외하곤 모든 곳이 특수 제작된 커다란 유리창으로 돼 있다. 열린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 막 물들기 시작한 단풍들이 바로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를 바로 눈 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지만 커다란 역사, 양원역

양원역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도 열차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눈물어린 염원으로 직접 세운 국내에서 가장 작은 역이다.

이곳은 30년 전만 해도 다른 곳에 가기 위해 철길을 따라 분천역까지 걸어야 했다. 주민들은 1988년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역사를 지었고, 이후부터 열차가 서고 있다.

양원역에 도착한 승객들은 차고 하나 크기도 되지 않는 대합실을 보고 미소를 짓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양원역 뒤로는 펼쳐진 밭 사이에 작은 농가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열차가 떠나고 나면 작은 역사 주변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경북 분천과 강원 철암은 O-train과 V-train의 환승역이 되면서 주말이면 1천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분천역에 내리면 백두대간에서 채취한 나물을 파는 할머니들이 정겹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기차소리가 날 때마다 가을 하늘이 더욱 푸르러진다.

글 김미화

사진제공 코레일, 태백시청

남도해양관광열차 'S-train'

"풍부한 먹거리 즐기러 남도로 떠나요"

남도의 맛과 멋,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남도해양관광열차'가 개통됐다.

S-train이라 불리는 '남도해양관광열차'는 기관차와 5량의 객차로 구성됐으며 총 좌석수는 218석이다. 각각 부산~여수엑스포, 광주~마산 구간을 매일 1회씩 왕복한다. 운행시간은 편도 4시간 30분 정도.

S-train은 거북선의 이미지로 객실 5량은 쪽빛, 동백꽃, 거북선, 학을 모티브로 했으며 힐링실, 기족실, 키페실, 다례실, 레포츠실 등으로 꾸며진다. 키페실에서는 남도의 풍부한 먹거리를 체험하고, 다례실에서는 남도의 명품 차를 음미할 수 있다.

팽정광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남도해양관광열차 'S-train' 운행이 남해안권 관광활성화 및 동서동합과 지역 상생발전의 한 축을 긋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박람회 시대

올해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6개 박람회 개최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 박람회는 낯설다. 그나마 박람회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지난해 여름에 열렸던 여수세계박람회 정도 일 것이다. 모처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는 꽃을 화려하게 피어보지 못한 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람회라는 기억만을 남겼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박람회는 '문화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고 우리의 문화를 키워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앞선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어젠다(agenda)'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시작으로 이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돼 지역 활성화와 지방박람회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40개의 다양한 지방박람회가 개최으며 2018년까지 19개의 지방박람회가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6개의 지방박람회(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등)가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심볼캐릭터

2012여수세계박람회 [illegible]

함평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 전경

대장경세계문화축전 · 한문연 업무 협약

올해도 지방박람회 러시다. 4월부터 11월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6개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45일), 오송화장품 · 뷰티세계박람회(24일), 천안웰빙식품엑스포(17일), 고양국제꽃박람회(16일) 등 6개의 지방박람회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5일 동안 열리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성공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식을 맺고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미니 박람회 규모로 개성이 부족한 지방박람회가 난립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박람회에 기대하는 참신성과 놀라움, 새로운 발견이라는 측면이 결여돼 개최효과도 반감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박람회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들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박람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박람회는 공인, 비공인으로 나눠져

박람회는 세계박람회와 국내 지방박람회로 구분되는데 국제박람회기구(BIE)공인의 세계박람회는 일반적인 국내 지방박람회와 많은 측면에서 구별된다.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크게 공인박람회와 비공인박람회로 구분된다.

비공인박람회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협약은 회원국이 비공인박람회에 국가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비공인 박람회는 이러한 이유로 진시수준이나 규모가 공인박람회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며 대부분 국내행사 수준으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을 받은 박람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고유 명사화됐다.

지방박람회는 지역의 산업진흥, 국제교류, 주민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개최승인 심사를 받아 개최된다. 지자체 및 해외 자치단체, 관련단체가 참가하며 지방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는 지역과 주제에 근거한 기술과 문화의 전시와 문화예술행사이다. 개최기간은 2주~3개월 이내로 세계박람회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개최주기는 단발, 3년 등 다양하다.

지방화시대와 함께 시작된 정보화, 국제화, 경제사회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과 같은 산업구조의 개편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으로 지역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게 됐다. 기존의 생산과 기능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지역개발에서 시민들의 의식, 문화, 정보, 행성,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소프트한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각 지자체는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서, 지역구조의 개편과 함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람회의 역할은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개발과 활성

박람회란?

우리나라는 엑스포를 박람회로 명칭하고 있는데, 박람회란 어휘는 '많은 것을 모아 펼쳐 보이는 행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제박람회 협약 제1조는 박람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람회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 대중의 계몽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박람회에서는 문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전시할 수 있고 특정분야 또는 제반 분야에서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된 발전상을 전시하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화의 기폭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박람회를 통한 지역홍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재정수입의 증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박람회와 지방박람회의 유형

구 분	세계박람회	지방박람회
개최목적	인류 상호간 이해와 복리증진	산업진흥, 국제교류, 주민의식 향상
성 격	인류 미래비전 제시 및 국가홍보 위주의 비상업적 행사	지역산업신흥과 활성화 위한 행사
개최승인	국제박람회기구(BIE)	기획재정부
참가단위	국가, 국제기구(국가간 행사)	지자체 및 해외자치단체 (단체 간 행사)
전시대상	참가국의 기술과 문화 등	지역과 주제에 근거한 기술과 문화 등
관 람 객	일반대중	일반대중
개최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2주 ~ 3개월 이내
경제적 효과	장기적	중기적
개최주기	등록박람회 : 5년마다 인정박람회 : 등록박람회 사이 1회	단발, 2년, 3년 등

박람회는 지역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인가?

박람회를 계기로 환경정비, 부지이용 촉진, 회장정비에 따른 조성, 건설공사에 의한 경기자극, 관람객을 비롯해 대규모 인원의 이동과 대량소비로 새로운 수요의 창출 등 직접적 효과는 어느 박람회에서나 공통되는 개최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개최된 지방박람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대장경천년문화세계축전이 1조 4,721억 원, 금산인삼엑스포는 4,665억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4,180억 원이었다. 이들 박람회는 흥행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더라도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경제효과를 가져온 지방박람회가 지역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반드시 지역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 즉, 경제효과만을 주목적으로 한 일회성의 축제로 끝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주체성 확립의 장으로 박람회를 자리매김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작업과정을 거쳐야 활성화가 된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고 만들어 간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현재 2012년부터 매년

1

2

3

1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의 주제관
2 안성세계민속축전 행사장 전경
3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4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생명뷰티관

연간 5~6개의 지방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사업적 결손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해 공연히 많은 관람객 유치목표만을 추구하지 않는 만전의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구상단계 부터 '지역주의', '일회성'에서 벗어나야

박람회의 기본구상과 계획수립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 중 특히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지역주의'에 편중하려는 태도다. 보통 지방박람회를 개최할 때 흔히들 주최측을 비롯해 지역내의 각 단체나 소위 유지들이 모여 지역의 역사나 전통의 껍질속에 안주하거나,

지역 고유의 문제에만 한정한 채 모든 것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라 해도 넓게는 국가와 전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를 주제의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전 세계의 상황이나 동향까지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라는 선입견이다. 박람회는 원래 중기간의 일회성인 이벤트이다. 따라서 박람회와 같은 대형이벤트는 일회성 즉효약으로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박람회는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파급효과를 확대시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람회의 파급효과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간접적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유념해야한다.

셋째, 지역민의 비주체화다.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주민을 위한 박람회를 목표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준비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이나 창구를 조직적이며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주민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제시하기 쉽도록 방법을 미리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락성 편중이다. 행정주도로 개최하는 공공박람회인 이상, 단순히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회성과 교육성을 가진 빅람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밝고 즐거운 분위기와 관람객의 주목을 끌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행정주도로 개최되는 지방박람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소프트한 사회성과 교육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명랑한 오락성이 가미된 매력적인 내용으로 기획해야 한다.

지역민 의견 수렴 · 조정 창구 지방문화원

행정주도형 박람회는 주최자나 참가 단체, 기업만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능한 한 주민의 지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지역공통의 목표를 내걸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결집해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지역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도 지방박람회 목적 중 하나이

4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우선 주민들에게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와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의견제시 방법'을 연구해서 제공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지방문화원의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 개설, SNS홍보나 전단배포 등의 홍보활동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관람객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박람회를 앞두고 주변의 요구가 클 수 있다. 특히나 특정 단체나 조직이 주민참여란 명분을 내걸고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된다면 주최자는 경영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 결과 역시 모두 주최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입각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은 박람회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글 이각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장

사진제공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함평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7가지 무지개 빛깔로

농촌체험마을 운영 '인기'

천혜의 자연과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예부터 '효'(孝)와 '충'(忠) 정신의 본거지라 불리는 곳. 사시사철 바람에 흩날리는 은은한 꽃향기 속을 칙칙폭폭 하얀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가 달리는 곳. 앞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뒤로는 지리산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곳. 그윽한 흙냄새에 한번, 아름다운 시골 농부의 미소에 또 한번 매료되는 곳.
바로 전라남도 곡성이다.

자연속의 청정고을 곡성에는 2013년 현재 총 7개의 농촌체험마을이 들어서 있다.

2009년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을 포함해 3개 마을로 시작한 곡성농촌체험마을은 지난해 7개 마을로 늘어나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약 2,000여명. 방문객은 7개 마을 중 자신이 원하는 마을을 직접 선택한 후 원하는 날짜에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농촌을 체험하고, 자연을 느끼는 곳이다. 도심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생각하며 방문해서는 안 된다. 자연 바람을 느끼며 대청마루에서 마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박을 쪼개 나눠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요, 웰빙이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이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 넉넉한 시골 밥상 맛볼 수 있어

매년 1,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다는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은 섬진강 줄기 212km중 가장 아름다운 협곡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강 따라 넓게 조성된 잔디밭 양쪽으로 시원스럽게 뻗은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를 따라 자전거 하이킹을 하다 보면 왜 곡성군이 군 통합브랜드를 '자연속의 청정고을 곡성과 골짝나라'로 명명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격적인 관광지로의 개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농촌을 위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식당은 많지 않지만 시골 산채나물 밥상과 순두부 백반을 맛볼 수 있다.

두계외갓집체험마을

다슬기 · 송사리잡기 체험 인기

두계외갓집체험마을에 위치한 두가헌은 섬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옥으로 손꼽히며 유명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임 시절인 2011년도에 1박 2일간 머물렀으며, 시인 김용택씨를 비롯한 김영구 전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머무르며 휴식을 즐기다 간 곳으로 유명하다.

한편 두계외갓집체험마을 주변에는 청소년 야영장과 수련원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청정계곡에서 다슬기 · 송사리 잡기 체험을 할 수 있어 학생 방문객이 많은 편이다.

봉조농촌체험학교 "새끼 꼬고, 절구질 해요"

봉황이 깃들인다는 서봉마을과 검은 새가 날고 잠을 잔다는 현조마을을 합해 이름 지어진 봉조마을. 산새가 깊고 많은 골짜기가 있으며, 마을을 흐르는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옛농촌생활체험(새끼꼬기, 가마니짜기, 절구질), 먹을거리체험(밤쨈 만들기, 매실차담그기), 농사체험(매실따기, 고구마캐기) 등을 할 수 있다.

무창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도 하고 심청문화센터도 구경하고

전남 곡성군의 북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마을 무창녹색체험마을은 200여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다. 점토질 양이 높아 기름지고 넓은 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양질의 과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과를 비롯해 포도, 동부콩 등이 유명하다.

마을주변에는 사과, 포도따기 체험장이 있고 가까운 위치에 곡성 자연생태관, 심청문화센터가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봉정녹색농촌체험마을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식사 가능

죽곡면 봉정마을에서는 뗏목타기, 대나무 물총, 쑥 · 인절미 만들기를 할 수 있다. 또 1인당 5,000원이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낙엽 및 씨앗 등으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드는 씨앗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무농약 재배한 콩을 맷돌에 돌려보고 간수를 맞추면서 순두부도 먹고 고소한 두부도 맛볼 수 있는 1석2조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직접 만든 두부는 저녁식사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다.

하늘나리마을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로 주목

천혜자원인 해발 753고지 봉두산 아래

할머니 인형극단 '민들레' 무료 봉사 공연 후

위치해 작은 골짜기 사이로 등산로가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는 표지석이 먼저 눈에 띈다.
토종꿀 내리기, 매실따기, 밀랍초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계곡생태체험을 통해 다슬기, 가재, 날도래유충 등 1급수에서만 사는 생물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죽산녹색농촌체험마을 수확한 사과는 집으로

곡성군 겸면 운교리 죽산마을 일대로 마을 뒤편에 검정산(해발 437m)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예부터 마을 동산에 죽림이 무성해 살기 좋다하여 죽산마을이라 이름지어졌다. 죽산마을에서는 사과따기 체험학습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 때문에 추석을 전후로 가을에 체험학습이 가장 붐을 이룬다. 수확한 사과는 각자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다.

실무협의회 구성, 회의 통해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곡성은 우리나라 대표 산골 오지 마을인 동시에 교통이 매우 편리한 마을이기도 하다.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의 도로가 접하며 전라선 등 기차가 곡성군을 경유하고 있어 도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이 유명세를 타고 인근 태안사, 지리산, 산동온천을 포함한 관광자원이 풍부해 매년 많은 관광객이 곡성의 농촌체험마을을 찾고 있다.
곡성농촌체험마을은 곡성문화원과 곡성군,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곡성문화원과 7개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달 회의를 통해 체험마을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을 논의, 진행하고 있다.

체험비용 최고 50% 지원

한편 무료 봉사 맞춤 공연과 체험비 지원으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단체 등에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문화원은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인 '할머니 인형극단(민들레)'의 인형극 공연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마을에서 드는 숙박, 식사를 포함한 전체 체험비용의 최고 50%까지를 지원한다. 곡성문화원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던 지원금은 2010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더 많은 방문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초 · 중 · 고등학생일 경우 지원금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자체 심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곡성농촌체험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4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마감되기도 한다.

관리인력 확보 어려워…

곡성농촌체험마을에는 밤낮이 없다. 계절과 날씨, 체험의 특성에 따라 이른 아침 체험일정을 진행하기도 하고, 늦은 밤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체험마을 내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

단감 따는 초등학생들 옥수수 따기 체험현장 양파캐는 모습

이다. 사무장들의 잦은 교체와 오랜 공석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어렵게 한다. 또한 마을 밖 지역민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박을 하는 징소나 음식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절차나 제도 역시 정해져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현재 곡성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과의 농산물 직거래 자리를 만듬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곡성의 농촌체험마을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곡성을 찾는 도시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최근 곡성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고령화,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는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향수 및 전통문화, 생태적 자원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와 결합돼 농촌체험마을이 확산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농촌체험마을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소득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도시민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고향의 푸근함을 느끼고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김학근 곡성문화원장은 "곡성의 농촌마을을 체험하는 도시민과 지역거주민들의 교감이 이뤄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곡성을 방문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준원 곡성문화원 사무국장은 "사무장 등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마을 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큰 힘이 된다"며 "향후 섬진강 7개 체험마을의 특색 음식을 개발해 마을 주민들에게 전수, 대표향토 음식으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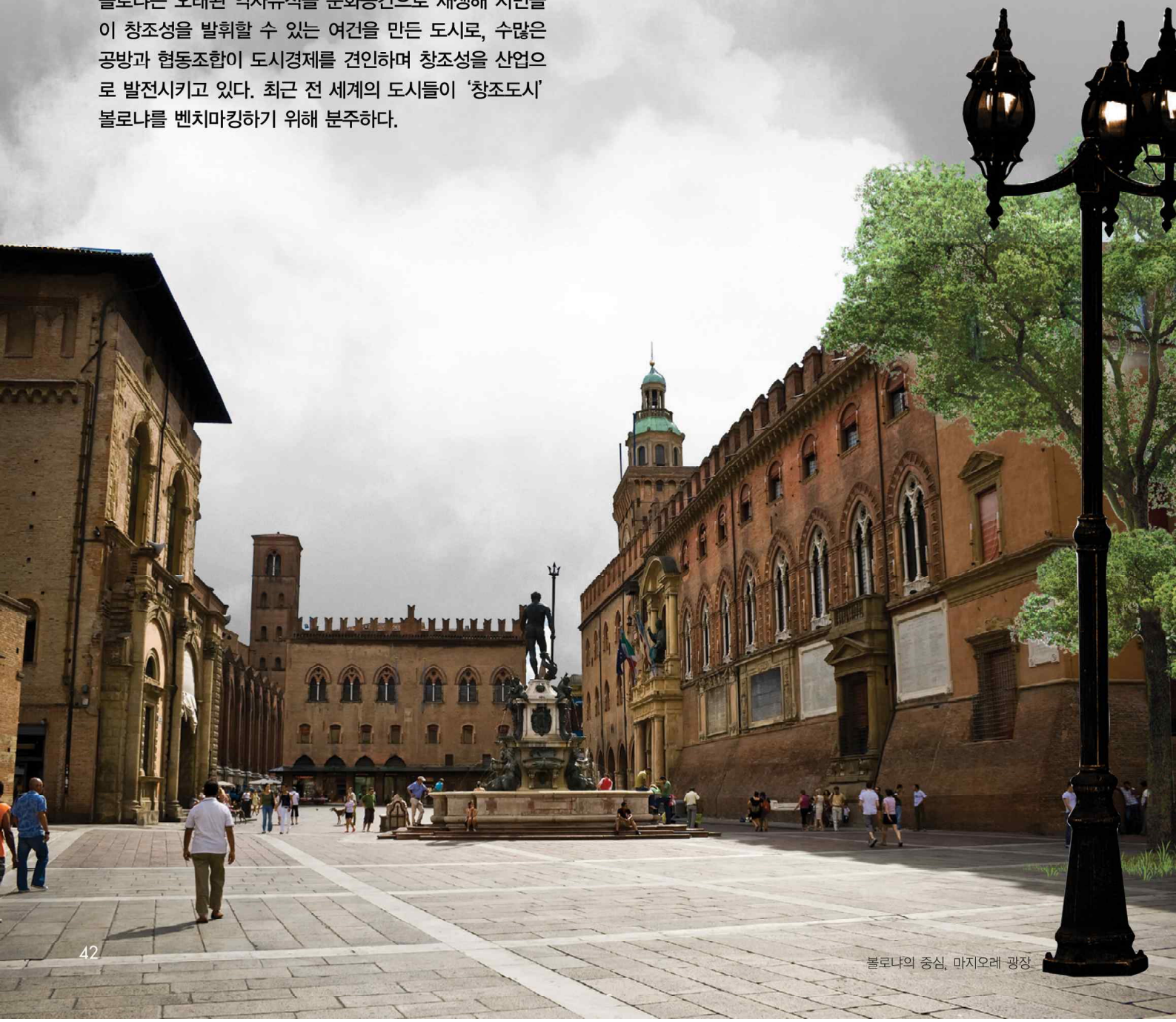
글 김미화
사진제공 곡성문화원

곡성농촌체험마을 현황

마 을	체험프로그램	주 소	연락처
봉조농촌체험학교	고로쇠 채취, 뗏목타기, 두부 메주 만들기 등	오곡면 봉조리 15-1	061-362-5268
하늘나리농촌전통테마마을	토종꿀 내리기, 매실따기, 밀랍초 만들기 등	죽곡면 하한리 647	061-363-8546
기정녹색농촌체험마을	감지 심기, 산나물 체취, 인절미 만들기 등	고달면 두가리 682-1	061-363-1637
두계외갓집체험마을	계곡트래킹, 물고기잡기, 연만들어 날리기 등	고달면 두가리 494-1	070-7724-5587
무창녹색농촌체험마을	텃밭체험, 한지공예, 사과따기, 포도따기 등	옥과면 무창리 1164-16	061-360-8224
봉정녹색농촌체험마을	씨앗공예, 농산물수확체험 등	죽곡면 봉정리 508-1	061-360-8224
죽산녹색농촌체험마을	고구마캐기, 인절미 만들기, 사과따기 등	겸면 운교리 468-13	061-360-8224

이탈리아 볼로냐,
도심 뒷골목 공방 덕분에 '문화'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세계에서 가장 긴 회랑을 보존하고 있는 도시, 어린이 도서전 등 다양한 박람회가 열리는 도시, 유럽의 문화도시로 알려진 도시, 바로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
볼로냐는 오래된 역사유적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해 시민들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도시로, 수많은 공방과 협동조합이 도시경제를 견인하며 창조성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의 도시들이 '창조도시' 볼로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분주하다.



볼로냐의 중심, 마지오레 광장

포르티코가 아름다운 유서 깊은 역사도시, 볼로냐

볼로냐는 유럽 중세 도시스타일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유명하다. 세계 2차 대전 때 빈번한 공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스타일의 기념물을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역사도시다. 이탈리아 북부 내륙에 위치한 도시 볼로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위치했다는 이유로 '현자(賢者)의 도시' 라는 별명과 함께 가옥들이 붉은 색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 '붉은 도시' 라고도 불린다.

볼로냐에는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 도심 모든 건물의 1층마다 처마가 보도까지 뻗어 나가 전 시가지를 회랑처럼 구석구석 연결해주고 있다. 덕분에 눈이 내려도, 비가 와도, 햇볕이 강해도 보행자들은 건물 복도를 걷는 것처럼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아치형 모양의 이 회랑은 '포르티코(portico · 주랑 · 柱廊)' 라고 불리는데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볼로냐만의 특별한 건축 디자인 방식이라고 한다.

볼로냐는 도심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사유지의 일부를 개조해서라도 포르티코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볼로냐의 포르티코는 건물마다 그것이 생겨난 시대의 유행을 반영해 각각 모양이 다르다. 소박한 중세풍, 섬세한 고딕풍,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 중후한 바로크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의 포르티코는 볼로냐의 역사를 말해준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로냐는 로마 · 밀라노 · 피렌체 · 베네치아처럼 널리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었다.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볼거리가 별로 없는 이름 없는 도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볼로냐는 유서깊은 볼로냐대학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과 사상, 그리고 산업을 창조하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유명해졌다. 다른 도시에 앞선 전통적인 시가지의 보존과 재생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볼로냐의 사탑

공동화된 도심을 문화공간으로

볼로냐는 중 · 소 규모 공방들이 세계 수준의 명품을 생산하면서 이탈리아 제2의 부자 도시로 성장 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이 왕성한 창조도시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볼로냐가 창조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물관이나 미술관같은 문화공간이 아니라, 바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심 뒷골목의 개성 있는 공방들 때문이었다.

볼로냐는 1970년대 도시 외벽 밖으로 펼쳐진 교외지역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건축물이 볼려 있는 도심은 공동화되기 시작했다. 시는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재생'이라는 '볼로냐 방식'의 도심 재생전략을 짰으며, 1985년부터 도심을 6구역으로 나눠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 활용방안을 세밀하게 수립했다.

특히 볼로냐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볼로냐 2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첨단 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 옛 주식거래소는 이탈리아 최대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변신했고, '팔라초 디 렌초' 등 중세 귀족들의 저택은 대규모 이벤트와 회의를 열 수 있는 시설로 복원됐다. 또한 산업 시대의 공장, 창고 등 근대산업유산을 복원해 새로운 문화창조공간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볼로냐는 국제아동도서전, 타일 인테리어 국제전시회 등 세계적인 컨벤션과 이벤트를 개최하는 빅림회 도시로 발돋움했다.

도심 뒷골목 구석구석에 생겨난 예술 공방형 기업들은 도심 재생의 가장 큰 힘이 됐다. 작지만 강한 공방형 중소기업을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전략은 수제 구두, 핸드백 등과 같은 세계적인 명품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작지만 창조적인 공방형 기업들은 CNA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를 상대로 기획, 홍보, 마케팅을 펼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방형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가 도심 재생전략을 짜고 금융, 박람회 전시 등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과 시설 정비를 넘어, 결국 창조적인 경제시스템이 도시발전을 뒷받침한 것이다.

윤택한 도시의 비밀, 협동조합

볼로냐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은 유적과 문화시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볼로냐의 문화적 특성은 '협동조합'을 만나 경제분야에서 또 다른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볼로냐에는 변변한 대기업이 없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유럽에서도 손꼽힐 만큼 윤택한 생활을 한다. 볼로냐가 윤택한 도시가 된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협동조합의 발달에 있다.

볼로냐는 협동조합의 비중이 전체 경제의 45%를 차지한다. 볼로냐에만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중 15개가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GDP의 30%, 볼로냐가 속한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경우 모든 생산 경제 활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덕분에 2008년 경제위기 때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볼로냐의 건축디자인 방식 포르티코(회랑)

볼로냐는 빨간 지붕, 붉은색 가옥이 많아 '붉은도시'라고도 불린다

볼로냐 뒷골목의 소규모 마켓들

볼로냐에서는 농민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여러 협동조합 형태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상품 모두에 협동조합의 손길이 닿는다. 그래서 볼로냐는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로 불릴 정도다. 이렇게 볼로냐의 협동조합이 잘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생활, 농업, 공산품을 넘어 은행,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규모도 대규모의 마트급 가게부터 소규모의 가게까지 다양하다. 이밖에도 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다.

창조도시의 첫째조건은 '시민 참여'

볼로냐는 인구 42만 명으로 이탈리아에서 인구 규모로는 일곱 번째 도시이지만 이탈리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도시이자, 가장 창조적인 문화도시이다. 볼로냐는 2000년 유럽문화도시, 2006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음악 분야 창조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많은 문화 인프라를 정비했다. 볼로냐시의 성공에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참신한 기획과 일관된 정책추진, 민간단체와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창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 볼로냐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발전이 모색되고 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다. 도심 뒷골목의 작은 공방들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산업을 만들었고 농민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들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할 수 있게 한다.

볼로냐에서 가장 주목 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다. 볼로냐의 도심재생은 지역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 간의 철저한 민주적 토론을 바탕으로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고, 역사적인 경관을 보존하며 생활을 배려한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볼로냐를 창조도시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의 계획, 제정과 같은 노력들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포르티코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창조도시는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산업으로 연계해 창조산업군의 발전이 도시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용과 부를 창출해야 한다. 볼로냐에서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즐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볼로냐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승화시켰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와 콘서트홀 등을 이용해 창소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20개가 넘는 문화협동조합의 활약은 창조도시 볼로냐를 더욱 눈부시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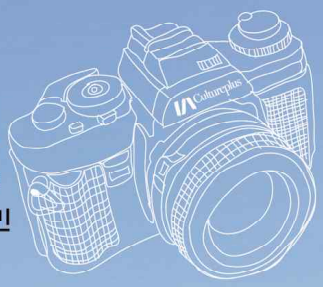
글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 포토큐어

참고자료

김결(2012.9). 붉은 도시 볼로냐의 색깔.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35. p.90~95.
안영규(2008.12).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시활성화 성공사례.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8(2), p.23~38
동아일보(2006.1.20). "[노시, 미래로 미래로] 이탈리아 볼로냐"
시사인 뉴스(2011.7.20). "이탈리아 블로냐가 윤택한 이유"
볼로냐市 http://www.comune.bologna.it/

혹시, 전문가용 DSLR 카메라를 똑딱이처럼 찍고 계십니까?



정기총회, 이사회, 문화강좌 개강, 문화재 답사 등등… 1인 다역으로 일 년에도 수십 차례의 행사를 치러야 하는 문화원 관계자들에게 사진 촬영은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저렴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촬영을 하게 됐다. 더욱이 찍은 사진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사진이 아니면 지우고 다시 찍으면 그만이다. 그 옛날 한 장 한 장 신중히 필름을 아껴가며 사진을 찍던 시절과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에 불과하지만 상전벽해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도 주인이 다루기 나름이라는 것. 요즘 카메라 애호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DSLR(렌즈 교환식 디지털카메라)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스마트 폰 보다 못한 사진이 나오곤 한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P'(프로그램)모드에 놓고 촬영을 해도 적당한 사진이 나온다. 하지만 DSLR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비해 훨씬 미흡한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사진 지식과 기술을 조금만 알아 놓는다면 현재 사진보다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지금, 장롱 속 카메라를 얼른 꺼내 셔터를 눌러보자. 찰칵!

셔터스피드shutter speed

빛이 들어오는 셔터막이 열리고 닫히는 속도

셔터스피드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셔터막이 열렸다 닫히는 속도를 말한다. 셔터스피드의 값은 1초, 1/2초, 1/4초, 1/8초, 1/15초, 1/30초, 1/60초, 1/125초, 1/250초, 1/500초, 1/1,000초, 1/2,000초, 1/4,000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수치 차이를 1 스탑(stop)이라고 하며, 1 스탑의 차이는 빛이 두 배 혹은 반으로 줄어드는 차이를 말한다. 셔터속도가 빠를수록 움직이는 대상의 한 순간을 분명하게 찍을 수 있으며 셔터속도가 느릴수록 여러 동작이 겹쳐진 것처럼 늘어져 보인다. (사진1-1, 사진1-2 참고)

사진1-1, F2 1/4000초 ISO100

사진1-2, F22 1/30초 ISO100

조리개diaphragm

숫자 클수록 심도 깊어져…

조리개는 보통 렌즈 안에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다. 조리개의 값은 'F'로 F1, 1.4, 2, 2.8, 4, 5.6, 8, 11, 16, 22… 로 표시된다. 이 수치 차이를 1 스탑(stop)이라 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구멍의 크기가 넓게 되며 심도가 얕다(사진2-1).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심도가 깊어진다(사진2-2).

심도는 사진을 볼 때 초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의 깊이를 말한다.

사진2-1, F2 1/50초 ISO200

사진2-2, F22 2.5초 ISO200

감도ISO

어두운 곳에서 감도 올리면 '효과'

ISO(감도)란 빛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감도의 값은 50,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등으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빛에 민감하고 입자가 거칠고, 숫자가 낮을수록 빛에 둔감하고 입자가 곱다. 이 수치 차이를 1 스탑(stop)이라 하며, 1 스탑의 차이는 빛의 감도가 두 배 혹은 반으로 줄어드는 차이를 말한다. 필름카메라 시절 카메라에 필름을 끼우면 감도가 정해져 있어 감도를 바꿀 수 없었으나 DSLR로 변하면서 언제든지 감도를 바꿀 수 있게 됐다.

노출exposure

셔터스피드 · 조리개 · ISO의 조합

노출은 위 세가지(셔터스피드, 조리개, ISO)가 조합해 만들어진다. 즉 셔터스피드는 움직임을, 조리개는 심도를, ISO는 입자의 거친 정도를 결정한다.

먼저 객관적인 적정노출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밝기를 말하며 주관적인 적정노출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표현하려는 대상이 잘 나타나도록 특정 값을 부여해 밝기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 기계적으로 카메라 노출계가 위 세 가지(셔터스피드, 조리개, ISO)를 직절히 조절해 노출을 만든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고려해 촬영자가 노출과다/부족, 입자 거칠게/곱게, 심도 깊게/얕게, 피사체 움직임/멈춤 등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반 셔터Half Shutter

초점 맞추는 기능, 구도 만들어 '찰칵'

반 셔터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말한다. 셔터를 반쯤 눌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후 구도를 정한 후 완전히 누르면 원하는 사진이 찍힌다. 참고로 피사체를 중앙에 두는 것도 좋겠지만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1/3 지점에 피사체를 놓는 것도 매력적인 사진을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다.

셔터스피드와 조리개의 연관성

셔터스피드와 조리개는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이 한쪽에 빛이 들어오는 양이 늘어나면 다른 한 쪽은 줄어들어야 한다. 앞 페이지의 사진1-1은 분수를 찍을 때 셔터스피드를 빠르게 해 물방울을 멈추게 했지만 대신에 셔터막이 빨리 열렸다 닫히는 바람에 빛이 모자랄 수 있어 조리개를 많이 개방한 사진이다.
이 때문에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풀잎이 흐리게, 즉 심도가 얕은 사진이 나왔다.
반대로 사진1-2은 분수를 찍을 땐 셔터스피드를 느리게 함으로써 물결이 아롱지게 보이게 하는 동시에 조리개를 닫아줌으로 늘어난 빛의 양을 줄인 것이다.
때문에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풀잎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심도가 깊은 사진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문화재를 가치 있게 찍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사진의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날씨와 촬영은 매우 밀접한 관계다.

❶ 구름없는 맑은 날

구름없이 맑은 날, 햇빛이 순광인 구도의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노출은 조리개 F16에 셔터 스피드는 ISO분에 1초(1/ISO초)로 시작하면 된다. 이 값으로 촬영해 어두우면 노출을 늘리고 밝으면 노출을 줄여 찍으면 된다. 이와 같은 맑은 날에는 선명하고 진한 색을 찍을 수 있으나 그림자 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것을 플래시를 사용해 보정할 수 있다.

사진 3-1, F11 1/200 ISO200 플래시 적용

파란 하늘을 찍으려면 해가 뜨고 얼마 지난 후 해를 등지고 서서 촬영하면 된다. 사진3-2 경우 2012년 5월 12일 오전 8시 31분에 촬영한 사진이다. 일출은 오전 5시 23분.

사진3-2 F5.6 1/1500 ISO200

❷ 구름 낀 흐린 날

사진3-3 처럼 흐린 날엔 그림자가 희미해 현판 부분도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셔터 스피드가 감소해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ISO를 올리는 것보다 삼각대를 사용해 촬영하는 게 좋다. 화이트 밸런스 또한 '구름'에 셋팅한 후 촬영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진3-3, F5.6 0.4초 ISO100 삼각대 사용

❸ 실내촬영

보통의 사무실 밝기에서 촬영하는 경우 우선 노출을 ISO 800, 1/60, F5.6에 맞춘다. 이때 사진이 어두우면 노출을 늘리고 밝으면 노출을 줄여 찍으면 된다.
우선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셔터스피드가 느린 관계로 촬영대상 혹은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삼각대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 둘째, 화이트 밸런스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조명들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셋째, 사무실 같은 경우 대부분의 빛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눈, 코, 목 아래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플래시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❹ 공연촬영

이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셔터 소리와 촬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내 공연 촬영인 경우 화이트 밸런스는 텅스텐으로 하고 ISO는 노이즈를 감안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한다.
또 조리개는 최대 개방하고 셔터스피드는 그에 맞는 속도로 셋팅 해 촬영하되, 만약 이 상황에서도 피사체의 움직임이 거슬리게 되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촬영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NG 컷으로 배워봅시다.
"이렇게 찍지 말아야지"

NG

OK

노출과다로 사진 색상이 날아갔네요.
그리고 삿갓 쓰신 분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죠.
약간만 오른쪽으로 가셔서 찍으면 됩니다.
앗,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네요. 이럴 땐 플래시를!

NG

OK

먼저 화이트 밸런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타이밍이 중요! 조금 더 가까이 서서 북치는 분들의 손이 올라갈 때 순간 포착하면 좋죠.
앵글을 망원으로 끌어 잡아당기던지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크롭핑(cropping)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붉은 선 부분까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북치는 분들을 살짝 겹치게 촬영하는 것도 좋지요.

NG

OK

또 놓치셨군요!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세요~
회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청자보다 화자를 메인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청자의 반대편에서 서브 촬영 하는 것도 좋겠네요.

초점과 구도

포커스가 아리따운 여성분이 아니라 공연 중인 무용수가 맞겠지요? 셔터를 반쯤눌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후 구도를 잡고 완전히 누르면 됩니다. 배경이 어지럽네요. 찍을 때 각도를 변경하거나 심도를 얕게 해 배경을 날리면 됩니다.

사진 촬영은 광범위한 정보를 함축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몇 개의 공식만으로 사진촬영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조건을 달리해 가며 많은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은 사진을 찍는 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글 권순겸
사진 권순겸, 한국문화원연합회

조기철 사무총장 취임 · **로버트 카파** 사진전 개막

한국문화원연합회 신임 사무총장에

조기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 취임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7월 12일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5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조기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이 취임했다.

지난 2월부터 공석이던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직에 부임한 조기철 사무총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6년 문화공보부 공보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공보처 홍보국 기획과,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진략기획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홍보콘텐츠과장, 한국정책방송원 방송기획관 등 홍보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조기철 신임 사무총장

한편 조기철 신임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로버트 카파 100주년 사진전 개막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개막 기념 커팅식 참석

지난 8월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로버트 카파 100주년 사진전〉 개막 기념 커팅식에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경향신문사가 주최하고 사진기획전문회사 디투씨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송승영 경향신문사 사장, 박덕수 디투씨 대표, 조대연 광주대교수, 임훈 후지필름 부사장, 크리스토퍼 필립스 뉴욕ICP 수석 큐레이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범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기광 대한항공 상무,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함께 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이번 전시회는 로버트 카파의 동생 코넬 카파가 직접 인화하고 선택한 뉴욕 ICP(국제사진센터) 소장 오리지널 프린트 160점이 공개된다. 한편 전쟁사진거장 포토저널리스트 로버트카파(Robert Capa/1913~1954)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는 10월 28일까지 열린다.

지방문화원 **신임원장 현황**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회장(2013. 7. 1/신임)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수원문화재단 이사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 부회장
수원문화원장(現)

군산문화원
이진원 원장(2013. 8. 1/신임)

군산중학교 교장
어르신영회회화 강사
나운복지관 어르신 컴퓨터 강사
나운복지관 필리핀 이주여성 우리말 강사
군산문화원 부원장

대구달서구문화원
차승열 원장(2013. 7. 11/신임)

포스코 예비군교육 교관
주)흥진 총무과장
주)푸른방송 부시장
달서구문화원 이사

김해문화원
이양재 원장(2013. 6. 22/신임)

김해여성상록회 회장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
민주평화통일지문회 김해시협의회 부회장(現)
김해문화원 특별회원
김해문화원 이사

고흥문화원
송시종 원장(2013. 7. 19/신임)

고흥군청 총무과장
고흥문화원 이사
민주평화통일고흥군협의회 부회장(現)
평생교육관 및 노인복지관 한문 강사(現)

강남문화원
최병식 원장(2013. 9. 7/신임)

강남문화원 이사(現)
문화원 창립 발기 이사
강남문화원 부원장(現)
운주문화연구원 원장(現)
주류성출판사 대표(現)

지방문화원 행사소식

서울

성동문화원
성동구 근현대 사진 공모전 / 2013.07.25~11.29 / 소월아트홀전시실 / 공모~전시

동대문문화원
2013 동대문구 청소년 및 주부 문예공모전 / 2013.08.01~09.05 / 동대문문화원
한가위 구민 한마음 민속 근진치 / 2013.09.12 / 용두근린공원
제23회 청룡문화제 / 2013.10.26~27 / 용두근린공원

성북문화원
2013 성북문화원 역사문화탐방 / 2013.09~10월 매주 (토) 9:00/ 성북동일대 정릉, 의릉일대, 한양도성 일대
제4회 2013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 2013.10.02~31 / 성북천 일대
2013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공연마당 / 2013.10.12 14:00 / 성북구민회관 대강당
하반기정회원 역사문화탐방 / 2013.10.24 / 강화도 일대
2013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전시마당 / 2013.11.01~10 13:00 / 성북예술창작터
2013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앞으로 빛날 나날" 발표공연 / 2013.11.29 18:00 / 성북구민회관대강당

강북문화원
한가위 한마당 / 2013.09.04 / 강북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삼각산축제 / 2013.10.03 / 우이동 솔밭공원
문화가족 한마음축제 / 2013.10.19 / 고려대학교추운동장(족구장)

은평문화원
해설사 심화교육 / 2013.09 (매주 화,수) / 문화원
북한산둘레길해설 / 2013.09 (매주 토,일) / 북한산 둘레길
어르신문화나눔공연 / 2013.09.13 / 불광노인복지관
은평명사초청문화특강 / 2013.09~11 (매달 3째 목요일) / 대회의실
청소년예술제 / 2013.10.11 / 대공연장
은평향토사료 12집, 은평문예 22집, 은평문화 14호 발간 / 2013.12

금천문화원
제2회 박재홍 저국가요제 대회 / 2013.09.27 / 금빛공원 야외공연장

영등포문화원
제15회 영등포구청소년음악경연대회 / 2013.09.10 17:00 /영등포아트홀
제18회 영등포문예공모전 / 2013.09.01~10.15 / 영등포문화원
제18회 청소년미술실기대회 / 2013.09.28 10:30 / 영등포공원 잔디마당
제20회 구민휘호대회 / 2013.09.28 10:30 / 영등포문화원 전시실 및 영상실
영등포문화원연희단과 함께하는 제2회어르신콩쿨대회 / 2013.10.25 15:00 / 영등포아트홀
제14회 문화학교회원작품전(전시) / 2013.11.04~08 / 영등포문화원 전시실
제14회 문화학교회원작품발표회(공연) '춤과 음악의 문화나눔페스티벌' / 2013.11.04 15:00 / 영등포아트홀
영등포문화원 시와음악이 있는 송년의 밤 / 2013.11.20 17:00 / 영등포문화원 대강당

동작문화원
문화시민강좌 '영화로 떠나는 영상 기행' / 2013.09.06, 2013.10.04, 2013.11.01 18:40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네여인의LOVE STORY" / 2013.09.11 19:00 / 동작문화복지센터대강당
동작구민 백일장 / 2013.09.24 13:00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노들가요제&도심속 바다축제 / 2013.10.04~05 / 노량진 수산시장
사육신 추모문화제 / 2013.10.08 19:00 / 동작문화복지센터대강당

관악문화원
제26회 낙성대인헌제 / 2013.10.19 / 낙성대(안국사)
관악문화원 만돌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2013.10.24 / 관악문화관 공연장
서울관악문화예술인전 / 2013.11.4 15:00 / 관악문화원 전시실
인헌문학출판기념시낭송회 / 2013.11.19 15:00 / 관악도서관 대강의실

강동문화원
제3회 모란꽃 사생작가 초대전 / 2013.09.02~09.08 / 강동구민회관1층 다누리미술관
제12기 강동문화대학 / 2013.09.25~12.04 / 강동구민회관1층소회의실
평창오대산 문화유적답사 / 2013.10.18 / 평창 오대산
미술관 견학 / 2013.11.07 / 미정

구로문화원
점프! 구로 2013 구로구민축제 / 2013.09.27~29 / 안양천, 고척근린공원 등
제13회 구로시화전 / 2013.09.30~10.04 / 항동 푸른수목원
제22회 구로서예전 / 2013.10.17~21 / 구로아트밸리 갤러리
제16회 구로구 휘호대회 / 2013.10.19 / 구로구청 5층 강당
2013. 하반기 문화유적지 탐방 / 2013.10.25
제22회 구로미술전 / 2013.10.24~30 / 구로아트밸리 갤러리
제13회 구로사진전 / 2013.11.07~11 / 신노림 예술공간 고리

부산

동래문화원
제19회 동래읍성역사축제 / 2013.10.11~13 / 동래읍성,온천장,동래문화회관일원

북구낙동문화원
제21회 낙동민속예술제 / 2013.09.28~29 / 덕천초등학교

금정문화원
2013년 하반기 문화탐방 / 2013.09월 하순 / 경주일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퇴근길 (同感,동간)콘서트』 / 2013.09 하순 금,토 총 5회 / 부산대 전철역 남쪽 주차장 앞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숨은 작가를 찾아서 / 2013.09, 2013.10 총2회 / 금정구 관내 숨은 작가 탐방
중국 문화 교류 탐방 / 2013.09~10월 중 / 중국 청도시 위해
2013년 제2회평생학습박람회 / 2013.10.02~03 / 금정문화회관 야외광장
2013년 전통춤 소리공연 / 2013.10.18 / 금정문화회관대강당

사상문화원
제13회 사상강변축제 / 2013.10.12~13 / 삼락강변공원
제42차 문화유적탐방 / 2013.10.25 / 경남 남해 일원

부산진문화원
어르신난타반-부산진구 지자체공연 / 2013.09.26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와춤과소리의어울림 / 2013.10 / 부산진구청 지하대강당
문화교류-남해문화원 방문 / 2013.10~12 / 남해문화원
어르신사진반-작품 전시회 / 2013.12.02~08 / 부산진구청 백양홀
부산진문화원의 날 / 2013.12.04/부산진구청지하대강당

부산서구문화원
제2회 부산바다미술제 / 2013.09.14~10.13 / 송도해수욕장 일원
제6회 부산고등어축제 / 2013.10.25~10.27 / 송도해수욕장,부산공동어시장일원

사하문화원
사하문화인의날 축제 / 2013.10.05~14 / 을숙도문화회관광장등

대구

달성문화원
제18회 달성충효예술제 / 2013.10.08~11.06 / 본원 1층 전시실
제18회 사직제 / 2013.10.08 11:00 / 사직단(현풍면 상리 체육공원내)
제5회 추석맞이 결혼이주여성노래 · 장기자랑대회 / 2013.09.10 / 본원 1층 공연장
민요, 색소폰, 사물놀이 공연 / 2013.10 / 본원 1층 공연장
제23회 유적지 문화탐방 / 2013.10.01.~11.30 / 각 읍 · 면분원에서 선정

수성문화원
대구 고모령 효 축제 / 2013.09.07~08 / 수성못 수변공원일대

인천

부평문화원
실버문화사업 청춘극장 시즌3 / 2013.09.04~10.18 (매주 수, 금) 14:00 / 본원 지하 다목적실

강화문화원
찾아가는 유랑극단 공연 / 2013.09.28(교동), 2013.10.12(강화읍) / 교동초등학교(교동), 강화문예회관

(강화읍)
문화답사 / 2013.10.08 / 판문점

남구학산문화원
제10회 주민이 만드는 '하품영화제' / 2013.10.24~26 / 영화공간 주안
학산 마을 연극축제 / 2013.12.12~14 / 학산소극장

남동문화원
소래포구축제 / 2013.10.18~20 / 인천소래포구수변광장 및 습지생태공원 일원
청소년문화(영화)기행 / 2013.12.2 1/ 남양주종합촬영소 하자센터
시간여행-별자리이야기 / 2013.09.27~28 / 강원도 영월 별마로 천문대
시민문화동아리대축전 / 2013.10.25~26 / 구월동 로데오광장
남동문화예술제 / 2013.10.12 /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일원
내고장사랑-남동구문화탐방 / 2013.10.24 / 남동구 관내 유적지 일원
찾아가는문화원-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위한 우리문화 공감 / 2013.09.06 / 김치테마파크

광주

서구문화원
제3회 서구민 백일장 / 2013.10.09 / 서구풍암호수공원 야외공연장주변
제3회 명사아카데미 / 2013.11 (예정) / 서구문화원 문화교실 외
제8회 장수한마당 / 2013.10 (예정) /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
향토문화역사발굴사업 / ~2013.10(마감) / 광주지역
문화체험 및 가을답사 / 2013.10 (예정) / 광주 전남지역

대전

중구문화원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133주년 헌화식 / 2013.12.08 / 단재신채호 어남동 생가지
제11회 뿌리배일장 / 2013.10.12 14:00 (예정) / 뿌리공원

서구문화원
제13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개최 / ~2013.10.04 / 대전서구문화원

유성문화원
대전토요문화탐험대 / 2013.09~10 / 단양,안동하회마을
서포문화제 / 2013.09 / 유성문화원, 김반의 표(전민동)
두드림실버예술단공연 / 2013.09~12 / 요양원, 혜생원등
제20회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 2013.10 / 충북단양생태공원
철화분청사기전 / 2013.12 / 갤러리유성
수강생발표회 / 2013.12 / 유성문화원

울산

남구문화원
제12회 전국공모 한마음미술대전 시상식 및 개막식 / 2013.09.25 / 울산문화예술회관
처용문화제 처용맞이 / 2013.10.03 / 처용암공원
다문화가정전통혼례식 / 2013.11.02 / 남구문화원 정원

경기

성남문화원
'이무술 집 터 다지는 소리' 시연회 / 2013.10.09 / 남한산성놀이마당

안양문화원
인문학 강좌(안양을 담다/김지석) / 2013.9.24 / 문화원 강당
수석회 / 2013.10.11~13 / 아트센터 국제회의실
서도회 / 2013.10.11~15 / 문화원전시실
제41회 문화원의날 기념식 및 제28회 안양문화제 개막식 / 2013.10.19 / 삼덕공원
전통문화체험학습, 전통혼례시연 / 2013.10.19 / 삼덕공원
정조대왕 화산능행차 시연 / 2013.10.20 / 안양여고~명학공원
제19회 문화가족 작품전 / 2013.10.21 / 문화원전시실
제10회 안양시 민속경연대회 / 2013.10.26 /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제3회 문화기족 발표회 / 2013.10.31 / 문화원강당
마을제 7곳 / 2013.11.03~05 / 안양7곳 마을
인문학 강좌(안양지역의 마을제 전승의 의미) / 2013.11.12 / 문화원강당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펄버의 '대지' 전시회 / 2013.09.06~07 / 부천역사 3층광장
펄벅축제와 함께하는 전통혼례 가장 퍼레이드 / 2013.09.07 / 부천남초~부천남부역
전통문화예절캠프 4차(대상: 청소년) / 2013.09.07~08 / 한옥체험마을
부천 중동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 2013.09.12 / 중동시장
추석명절행사 / 2013.09.18~22 / 한옥체험마을
전통혼례 / 2013.09.28, 10.05, 10.20, 10.27 / 한옥체험마을
40꿈 전통주 전시회 / 2013.10.25~30 / 시의회 갤러리
석천농기 도구마리, 송파산대놀이 / 2013.10.26 / 부천시청 잔디광장
부천문화원 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2013.10.29 / 부천시청 어울마당
하반기 문화탐방 / 2013.10.31~11.1 / 경상남도 합천군
장말도당굿 보존사업 / 2013.11.03 /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원소사 대동산신제 보존사업 / 2013.11.05 / 소사본동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연계 전통문화체험행사 / 2013.11.07~11 / 한옥체험마을
우수전통민속보존 세미나 / 2013.11.15 / 부천시청 소통마당
복사골어르신합창단 정기공연 / 2013.11.15 / 부천 소사구청

동두천문화원
제28회 소요단풍제 / 2013.10.27 12:00~17:00 / 소요산야외음악당
합동전통혼례식 / 2013.11.09 14:00 / 시민회관 공연장
시가 있어 아름다운세상, 시민의 시 낭송회 / 2013.11.26 14:00 / 아름다운문화센터 공연장

고양문화원
나문화가정을 위한 무료 전통 혼례 / 2013.09.14 / 고양문화원 야외공연장

과천문화원
민속 5일 장터와 문화유직답사 / 2013.09.02, 09.27 / 진남 덤앙
과천 시민의 날 / 2013.10.10~11 / 과천문화원
제10회 한국추사시예대전 / 2013.11.29~12.09 / 과천문화원
제19회 과천향토작품전람회 / 2013.12.18~22 / 과천문화원
토토즐 2기 / 2013.09~11 / 과천문화원
토토즐 벼룩시장 / 2013.11.30 / 과천문화원
박물관이 살아있다 / 2013.08~12 / 경기도 내 박물관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 2013.09.27 / 포천 종합운동장

구리문화원
문화학교 나눔발표회 / 2013.11.08 / 청소년수련관
제27회 온달장군 추모제향 / 2013.10.11 / 고구려대장간 마을

시흥문화원
규자북성확제 / 2013.11.05 11:00 / 규자북정상

하남문화원
제8회 작은음악회 / 2013.09.06 / 하남문화원 1층 로비 하남문화예술회관 어울마당
추계문화대학특강 재미있는 논어 이야기 / 2013.09.05, 09.12 / 하남문화원 "인문학 교실"
시민의날행사참여 / 2013.10.06 / 경기도 하남시 종합운동장
제5회 학술대회 / 2013.10.11 / 하남문화원 "문화나눔실"
꽃꽂이 전시회 나도 플로리스트! / 2013.10.16 / 하남문화 예술회관 전시실
추계문화유적답사 / 2013.10.25 / 영암, 왕인박사의행적을찾아
문화대학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어르신문화동아리발표, 어르신문화학교사업,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 2013. 11.05, 11.08 / 하남문화예술회관전시실 아랑홀

파주문화원
율곡문화제 / 2013.10.12~13 / 율곡선생유적지

연천문화원
유적답사 / 2013.09.02~04/ 제주도일대

가평문화원
제27회 가평문화백일상대회 / 2013.10.22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상 및 수변
제14회 석봉한호선생전국휘호대회 / 2013.10.13 / 가평체육관

강원

동해문화원
동해문화원30년사 출판기념회 / 2013.08.20 14:00 / 동해문화원(3층대강의실)

태백문화원
태백산 천제 / 2013.10.03 / 태백산 정상 천제단
향토음식솜씨대회 / 2013.11 / 태백문화원 강당(2층)
문화유적지탐방 / 2013.10

영월문화원
문화교양특강 / 2013.09 / 문화원 대강당
경로효친 수범자 표창 / 2013.09 / 문하원 대강당
문화유적탐방 / 2013.10.22~23
문화학교 종합전시회 / 2013.11.20~22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문화학교 수료식 / 2013.11.22 11:00 / 문화사랑방

충북

충주문화원
제37회 김생서예대전 / 2013.12.07 14:00, 2013.12.07~12 / 충주문화회관 충주문화회관,관아갤러리
(중원문화의 향연)우리소리경연대회 탄금대사물놀이경연대회 / 2013.10.25 10:00, 2013.10.26 10:00
/ 충주 호암예술관 탄금대 야외음악당

제천문화원
청풍명월 골든벨을 울려라 / 2013.10.09 / 제천체육관

청원문화원
청원문화제, 청원군민의날 행사 / 2013.09.03 / 충북문화원(구 충북도시사 관사)
청원문화제 / 2013.09.27~10.06 / 청원군 오송 송대공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청원문화제, 청원군민의날 행사 / 2013.10.01 / 청원군 오송 송대공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세계인의 날 행사 / 2013.10.03 / 청원군 오송 송대공원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2013 청소년 도의교실 / 2013.11 / 청원군 청소년 수련관

옥천문화원
제17회 연변지용제 및 음악제 / 2013.09.05 / 중국연변예술극장
제2회 연변지용백일장 / 2013.09.03 / 훈춘시내일원
제37회 중봉충렬제 / 2013.10.11~13 / 옥천군일원

진천문화원
제3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 / 2013.10.04~06 / 진천읍 백곡천 둔치

충남

천안문화원
산약초 연구반 산행 실습 / 2013.08.05~2013.12.23 / 전국의 산 및 천안문화원 원성동 교육장(시기 및 행선지 : 산행일마다 변경)
산약초 연구 발표회 / 2013.08.05~2013.12.23
2013 전통다도,전통예절 교육 / 2013.08.01~2013.12.26 / 천안문화원 원성동 교육장 및 천안시삼거리다도문화원부설 산약초 농장
주민대상 건강 기체조 / 2013.09.05~2012.12.26 / 천안문화원 원성동 교육장
주민대상 다도예절 교육 / 2013.08.01~2013.12.31 / 천안문화원 원성동 교육장
2013 내포제 시조창(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2013.08.16~2013.12.27 / 천안문화원, 시조 경로당
문화유적 답사 / 2013.08.06~2013.11.31 / 충남지역(천흥사지 외)

서산문화원
제12회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2013.10.11~13 / 서산해미읍성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 2013.09.09~11.29 / 서산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 2013.09.09~11.26 / 서산문화원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 / 2013.09.10~11.05 / 서산문화원

논산문화원
조선시대과거제 제3회 논산향시 / 2013.10.12 10:00 / 논산돈암서원

부여문화원
제59회 백제문화제 전국백제토기물레경연대회 / 2013.09.29~30 / 부여 구드래 잔디광장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 2013.09.07~11.02 / 부여군 일원

예산문화원
제24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휘호대회 / 2013.10.12 / 추사고택 일원
제15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청소년휘호대회 / 2013.10.13 / 추사고택 일원

태안문화원
제6회 태안역사문화학술발표회 / 2013.11.08 12:00~18:00 /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천안동남구문화원
제93주기유관순열사순국추모제기념 제39회백일장사생대회 / 2013.09.28 / 유관순열사 기념관

전북

익산문화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 2013.09.17 13:30~14:30 / 익산역광장
추계문화답사 / 2013.10.22 08:00~19:00 / 경북 영주시 일원
주제가 있는 문화기행 / 2013.9.24, 10.12 / 대구근대골목, 서울 경복궁
익산시 초중고 농악경연대회 / 2013.11.01 9:30~13:00/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성포별신제 / 2013.11.15 11:00~12:00 / 익산시 성산면 성당포구
동지팥죽나눔 / 2013.12.20 10:30~12:30 / 익산문화원 기획전시실

남원문화원
남원향토대학 / 2013.09~11 (매주 목요일) /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
제14회 남원주당산제 / 2013.10.25(예정) / 남원석돈(남원우체국 소재 당산)

완주문화원
2013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2013.09.27~29 / 고산자연휴양림

무주문화원
삼도봉 만남의 날 / 2013.10.10 / 삼도봉 정상
문화가족의 날 / 2013.12.06 / 무주예체문화대강당

장수문화원
제6회 장수문화 예술인의 날 / 2013.10~11 / 한누리전당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내 깃절놀이 / 2013.09.06~08 / 한누리전당 야외공연장

전남

여수문화원
전라좌수군출정식, 전라좌수영 강강술래 / 2013.09.07 / 여수시 이순신광장

보성문화원
제1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 2013.10.19~20 /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보성다향체육관 특설무대

영암문화원
마을훈장연수 / 2013.09.27 / 영암문화원
문화강좌 / 2013.09.27, 11.01, 12.11 / 영암문화원
경남산청문화원 방문 산청전통의악엑스포 기찬예술단 무대공연 / 2013.10.03 / 영암문화원
판소리 교실 개강 / 2013.11.06 / 영암문화원
시 문학 발표회 / 2013.11.27 /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연구소 개설 / 2013.11.01 / 영암문화원
기찬풍물패 전국대회 참가 / 2013.11.12
군민예술제 / 2013.12.03?12 / 영암문화원

영광문화원
제13회 영광상사화축제 어르신 문화나눔 예술단 공연 / 2013.09.21 /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특설무대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의 이해 초청강좌(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 유홍준 교수 초청 강좌) / 2013.10.08 / 영광한전문화회관
문화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강좌(주제: 옛사진으로 만나는 영광) / 2013.10 / 영광군청소년 문화센터
문화학교 풍류로 만나는 천년의 빛 시낭송회 / 2013.10 / 영광 한전 문화회관
제41회 옥당문화제 글짓기,그리기 대회 / 2013.10 / 불갑사 수변공원
문화학교 향토문화예술체험교육 / 2013.11 / 미정
전남문화원 어르신들이 펼치는 문화예술 한마당(담양,순천,진도,함평,목포,영광,무안,고흥,장성) / 2013.09.27 / 영광 한전문화회관
어르신 문화나눔 예술단순회공연(10회) / 2013.8~12 / 관내?외 순회공연 전개
잊다! 있다! 잇다!효동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2013.03~12 /영광 효동 문화체험관

진도문화원
2013 온 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 2013.09.28~29 10:00~18:00 / 전남 진도 해상무대, 우수영 솔래마당
약무호남제례(순절묘역 제사) / 2013.09.27 10:00~12:00 / 전남 진도군 고군면 도평리 입구 순절묘역 광장

경북

경주문화원
제9회 경주시 풍물경연대회 / 2013.09.06 10:00~ / 경주첨성대 옆 (우천시 별도 통보)

김천문화원
제25회 삼도봉 만남의 날 / 2013.10.10 / 삼도봉
시민안녕기원대제 / 2013.10.15 / 김천분화예술회관
동지맞이 팥죽나누기 / 2013.12.22 / 김천역광장

안동문화원
제42회 안동민속축제 / 2013.09.27~10.06 / 탈춤공원 및 시내일원
제21회 경상북도풍물대축제 / 2013.10.01 10:00 / 탈춤공원

구미문화원
구미선비문화대학개강 / 2013.09.04 / 구미문화원
구미시 중국장사시 자매결연 15주년기념 합동공연 / 2013.09.04~06 / 구미시일원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구미발갱이들소리공연 / 2013.09.17~25 / 이스탄불

구미시 대만쭝리시 문화교류공연 / 2013.09.22~23/ 금오산잔디광장
어르신문화학교발표회 / 2013.11.02 / 금오산잔디광장
박정희대통령 송모제 / 2013.11.14 /박정희대통령생가

영천문화원
제3회 포은 정몽주 선생 송축 전국시조경창대회 / 2013.09.29 / 영천시청소년수련관
2013 영천문화예술제 / 2013.10.02~06 / 영천문화예술제 특설무대

상주문화원
출판기념회 개최 / 2013.09.27 / 상주문화회관
교류협력도시 예술 초청공연 / 2013.10.03 / 전라남도 곡성군 축제 행사장
제14회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개최 / 2013.11.13 / 상주문화회관

문경문화원
분경새재과거길 달빛사랑여행 / 2013.09.28 16:00, 2013.10.19 16:00 / 분경새재도립공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읍면순회공연 / 2013.09.07 19:00, 2013.09.13 19:00, 2013.09.27 19:00 / 문경선통시장 가은아사개상터 농암면사무소
문경문화제 / 2013.09.27 10:00 / 문경문화예술회관
선비문화아카데미 / 2013.09.03~11.26 / 문경문화원

경산문화원
제18회 경산 시민의 날 음악회 / 2013.10.11 / 경산시 실내체육관

성주문화원
성주군 풍물큰잔치 / 2013.10 / 성밖숲
성주문화원 문화학교 종합발표회 / 2013.11 / 성주문화원

예천문화원
제37회 예천문화제 / 2013.10.14~17 / 한천체육공원일대
예천아리랑 창극공연 / 2013.10.15 / 예천군문화회관
예천단샘다례축제 / 2013.10.15 / 한천체육공원
청단놀음 학술발표회 / 2013.11.06 / 예천군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봉화문화원
청량문화제 / 2013.09.27~30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생활체육공원 축제장

울릉문화원
우산문화제 / 2013.10.01~02 / 울릉군 일원

경남

진해문화원
제4회 학생연날리기 / 2013.12 / 풍호공원

사천문화원
조명연합군전몰위령제 / 2013.10.01/ 조명군총
지역문화재바로알기 기행문공모 / 2013.10 / 사천문화원
회원유적지탐방 / 2013.10 / 문화유적지

제16기 문화 학교졸업식 / 2013.11 / 사천문화원
사천정명600주년 기념행사 / 2013.11.17 / 사천시청 열린마당
성황당산성제 / 2013.11.08 / 정동면 예수리 성황당

밀양문화원
전통혼례 / 2013.10~11 / 밀양관아
문화유적지순례 / 2013.10 / 합천대장경세계문화축제 및 박정희 대통령 생가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 및 문화의날 기념 및 시상식 / 2013.10 / 각 체육관 및 회관, 둔치
제 8차 밀양 선현 추모 학술제 / 2013.11.14 / 밀양청소년수련관

거제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합천문화원과 교류사업 / 2013.09.30(예정)
찾아가는 음악회(거제시 마전동과 함께 6개팀 공연) / 2013.10.02
한글백일장대회(거제시 관내 초, 중, 고, 일반대상) / 2013.10.09
2013 전통민속한마당잔치 행사 / 2013.10.25(예정)
거제시 어린이합창대회 / 2013.10.30(예정)
향토삭가초내선 / 2013.10.20(예정)

함안문화원
아가는 문화공연 / 2013.10.11 10:00~18:00 / 립천 해인사
청소년 문화유적지 답사 / 2013.10.15 09:00~18:00 / 함안군 관내
회원 문화유적지 답사 / 2013.10.24 07:00~19:00 / 경북 소수서원
명시초청 강연회 / 2013.11.07 15:00~18:00 / 함안문화원 대강당
제6회 함안군민 취호 대회 / 2013.11.16 09:00~18:00 / 함안문화원 대.소 공연장
학술토론회 / 2013.12.05 09:00~17:00 / 함안문화원 대강당
문화가족 축제 / 2013.12.18 15:00~18:00 / 문화원 대강당

창녕문화원
비사벌문화예술제 / 2013.09.27~30 / 창녕군 일대

고성문화원
제3회 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 전시 / 2013.11.8~12 / 고성실내체육관

남해문화원
제17회 남해문화의 날 개최 / 2013.10.26 09:30~16:00 / 남해문화 체육센터

하동문화원
제18회 학생풍물 경연대회 / 2013.11.01 10:00~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공원 내
봉사단체 및 문화원회원 문화유적지 탐방 / 2013.10.10 08:00 / 경남 남해 및 거제시 일원

함양문화원
제9회 학술회의(고려후기 함양지역 유현의 학문과 문학) / 2013.10.22 13:00~ / 함양군청 대회의실

제주

서귀포문화원
제17회 서귀포칠십리 가요제 / 2013.09.29 / 서귀포칠십리시공원 특설무대
제6회 제주어말하기대회 / 2013.10.02 / 서귀포시민회관

시도연합회 행사소식

서울시연합회
2013 서울문화가족 국악경연대회 / 2013.09.09 14:00~17:00 /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
2013 서울문화가족 무용경연대회 / 2013.09.10 14:00~17:00 /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
서울문화원 간사회의 / 2013.09.04 17:30 / 시연합회 사무실
제1차 서울문화원장 정례회의 / 2013.08.29 18:00 / 강남문화원
제14회 서울문화가족 2013 한마당 근진지 / 2013.09.30 14:00~17:00 / 영등포아트홀
2013 청소년 사생대회 / 2013.10.05 13:30~17:30 / 운현궁
2013 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 2013.11 14:00~17:30/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인천시연합회
2013 임 · 직원 연수 / 2013.08.20~21 / 철원

광주시연합회
2013 광주문화원의날 기념식 / 2013.11.07 / 남구문예회관
201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지원사업 / 2013.09.07 / 영산강문화관.

울산시연합회
달빛문화기행 / 2013.09.11 (넷째주토요일) / 울산지역 유적지
문화원의날 및 문화의날 기념행사 / 2013.10.16/ 더파티울산뷔페
함월폐스티벌축제 / 2013.09 / 태화강고수부지일원

경기도연합회
경기도시군문화원형토론회 / 2013.09.04 13:00 / 경기창작센터
지역문화아카데미 2차-사무국장 연수 / 2013.09.04~06 / 경기창작센터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 2013.09.27~28/ 포천시 종합운동장
제15회 문화가족힙동연수 / 2013.11.21~22/ 가평좋은아침연수원(예정)

경남도연합회
2013 향토사연구위원 워크샵 / 2013.09.05~06 / 진해
2013 경남어르신농악경연대회 / 2013.09.27 / 창녕공설운동장
제7회 경상남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 2013.10 / 창녕문화원

지역문화와 지역협력

서동철 서울신문 논설위원

휴일이면 자전거를 즐겨 타는 동료의 이야기다. 서울의 한강변 자전거길은 거리 표지판이 잘 돼있어 몇 ㎞를 몇 시간, 몇 분에 주파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한강 본류를 빗어나 중랑천 자전거길로 접어들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구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누적 거리 표시는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한강 상류를 거슬러 춘천까지 이어지는 북한강 자전거길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도무지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한 사람의 관광객이라도 더 불러모으겠다고 안간힘을 쓴다. 엇비슷한 문화 자원을 놓고 이웃 자치단체와 벌이는 경쟁은 치열함을 넘어 볼썽사나운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만사 혼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길에서 보듯 경쟁보다는 협력이 내 고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역사 문화자원 개발에 자치단체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존경할 만하다. 그럼에도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 주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수입도 늘리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주변 자치단체에 흩어진 비슷한 성격의 문화 자원을 한데 묶는다면 새롭고도 매력적인 지역 문화 인프라로 개발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남한강을 따라 경기도 여주에는 고달사, 원주에는 법천사 · 거돈사 · 흥법사, 충주에는 청룡사의 옛터가 있다. 한결 같이 고려시대 국사나 왕사급 고승이 주석한 국찰급 폐사지다. 이곳에는 지금도 국보나 보물급 문화유산이 널려있다. 여주 · 원주 · 충주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협력한다면 수준 높은 폐사지 순례 프로그램이나 불교문화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다.

전남 영암은 월출산을 독점할 일이 아니다. 산 너머 강진과의 문화적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백제를 대표하는 마애불을 공통적으로 가진 충남 서산과 태안도 힘을 합치면 문화유산 답사객의 흥미는 배가될 것이다.

경북 영양과 영덕은 애국지사 벽산 김도현 선생이라는 문화 자산을 공유한다. 영양은 선생의 고향으로 토성을 쌓아 왜군에 무력으로 저항한 곳이고, 영덕은 경술국치 소식을 들은 선생이 스스로 바다에 길어 들어가 자결한 '도해순국' 의 현장이다. 3.1절이나 광복절에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애국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어찌 이것 뿐이겠는가. 이제 지역협력으로 지역문화의 새 길을 찾아보자.

대장경 미래를 열는 화합 세계로 가는 만남

2013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Tripitaka Koreana Festival

9.27~11.10 (45일간)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해인사 등 경남일원

www. tripitaka-festival.com

경상남도 GYEONGNAM　합천군 HAPCHEON　해인사 Haein Temple

http://banking.nonghyup.com

(전국은행연합회 발표기준)

사회공헌활동
2년 연속 1위

더 큰 나눔으로 고객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선물 NH-CA자산운용